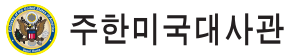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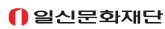
주최



후원



협찬



서울 환경 영화제

13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www.gffis.org

2016.5.06-12

씨네큐브, 서울역사박물관
인디스페이스, 스폰지하우스



환경과 발전이 친구가 되는 우리 마을,
에코-빌리지로 초대할게요.

환경재단 |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 in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솔라타의 마을.

이제 힘을 모아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면서도 마을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에코-빌리지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한 거예요.

안전한 식수, 태양광 전등, 에코 투어, 맹그로브 숲이 있는 마을로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 기업 02-2011-4300 (예금주 환경재단) 후원문의 | 02-2011-4321

환경재단의 방글라데시 |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 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이 지원합니다.

서울 환경 영화제

13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www.gffis.org



CONTENTS

상영시간표 보는 법	3	Legend for Screening Schedule
상영시간표	4	Screening Schedule
티켓 구입 안내	8	Ticketing Information
프로그램 이벤트	12	Program Events
그린아카이브	13	Green Archive
개막작	14	Opening Film
국제환경영화경선	15	Green Competition
한국 환경영화의 흐름	20	Green Panorama in Korea
지속가능한 삶	24	Sustainable Life
공존의 삶	27	Coexistence Zone
문명의 저편	31	The Other Side of Civilization
포커스 - 세계화의 오늘	33	Focus - The Present of Globalization
포커스 - 쟁점 2016	35	Focus - Controversy 2016
에코그라운드	38	Eco-Ground
작품 색인	41	Index
상영관 안내	42	Venue Map and Information

상영시간표 보는 법 Legend for Screening Schedule

등급 Ratings

- 6** 전체관람가 General
- 12**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자막 Subtitles

- E** 영어대사 또는 영어자막 English Dialogues or English Subtitles
- N** 비영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Non-English Dialogues + No English Subtitles
- ND** 대사없음 No Dialogues

※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외국어 상영작에는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 All non-Korean dialogue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 Some of non-English speaking films do not provide English Subtitles.

상영관 Theaters

Cinecube 씨네큐브 1관 **INDIESPACE** 인디스페이스
Sponge House 스폰지하우스 **Seoul Museum of History** 서울역사박물관
GT 게스트와의 만남 Guest Talk

※ 게스트와의 만남은 게스트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GT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 티켓카탈로그는 2016년 4월 1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서울환경영화제 홈페이지(www.gffis.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e ticket catalogue was printed out April 11, 2016. Please check out website periodically for change.

단편 묶음 목록 Combined Film Programs

국제환경영화경선 단편 1 Green Competition Shorts 1

해가 뜨는 날 / 루센스 / 주석소년 / 레드엔드와 식물공장 / 산불과 사람들
 Insolation / Lucens / The Tin Boy / Red-end and the Factory Plant / Mountain Fire Personnel

국제환경영화경선 단편 2 Green Competition Shorts 2

겨울 감나무 / 피고인들 / 목화의 꿈 / 지나간 미래
 The Lasting Persimmon / Defendant 5 / CottonDreams / Swayer Corporations

한국 환경영화의 흐름 단편 Green Panorama in Korea Shorts

소풍 / 동물도감 / 그녀의 전설 / 사회공존 / 적막의 경관
 Picnic / The Animal Book / Where Mermaids Go / Coexistence with Shihwa Lake / A Landscape Between Past and Future

공존의 삶 단편 Coexistence Zone Shorts

갈매기의 도시 / 와일드리스 / 그들만의 만찬 / 카틱 / 우리 집에 호랑이가 산다 / 달콤한 미스터리
 Seagull City / Wildless / Dinner for Few / KATIK / A Tiger in My Backyard / Sweet Mysterious

문명의 저편 단편 The Other Side of Civilization Shorts

팻볼루션 / 더 필드 / 그래피티 / 마지막 아누이트: 나누크의 후에
 Fatvolution / The Field / Graffiti / The Last Kings of the Arctic

포커스 - 쟁점 2016 단편 Focus - Controversy 2016 Shorts

Sky Park View / A.D.A.M. / 워터소물리에 / 플라로칸, 물의 천국
 Sky Park View / A.D.A.M. / Capital / Tlalocan, Water Paradise

에코그라운드 단편 Eco-Ground Shorts

뜻밖의 손님 / 살빼지 마요 / 나는 자구입니다 / 웰기사람들
 An Unusual Guest / Getting Fat in a Healthy Way / I Am Part of It / Wellgyi

씨네큐브 Cinecube

	Time	Title	R/T	GT
6 FRI	19:00	개막식 + 개막작 상영 Opening Ceremony + Opening Film 12 E		
	10:00	돌고래와 나 Dolphin and Me G E	60'	●
7 SAT	12:00	대도시 Megacities 18 E	90'	
	14:30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Nostalgia for the Light 12 E	90'	
	17:00	메신저 The Messenger 12 E	90'	
	19:30	데어 투 비 와일드 Dare To Be Wild 12 E	98'	●
8 SUN	10:00	레이싱 익스팅션 Racing Extinction 12 E	94'	
	12:00	앤츠 온 어 쉬림프 Ants on a Shrimp 12 E	88'	
	14:30	다음 침공은 어디? Where to Invade Next 12 E	120'	
	17:00	자개단추 The Pearl Button 12 E	82'	
	18:30	그린토크 1 Green Talk 1		
9 MON	10:00	점보 와일드 Jumbo Wild G E	60'	
	12:00	매춘의 그림자 Whores' Glory 18 E	119'	
	14:30	노동자의 죽음 Workingman's Death 18 E	120'	
	16:40	그린토크 2 Green Talk 2		
10 TUE	19:00	휴먼 Human 12 E	188'	
	10:00	하얀 이끼 White Moss 18 E	100'	
	12:30	한국 환경영화의 흐름 단편 Green Panorama in Korea Shorts G ND E	69'	●
	14:30	데어 투 비 와일드 Dare To Be Wild 12 E	98'	
	17:00	레이싱 익스팅션 Racing Extinction 12 E	94'	
11 WED	19:30	시상식 Award Ceremony		
	10:00	문명의 저편 단편 The Other Side of Civilization Shorts G ND E	99'	
	12:00	카르텔 랜드 Cartel Land 18 E	98'	
	14:30	대도시 Megacities 18 E	90'	
	16:30	매춘의 그림자 Whores' Glory 18 E	119'	
12 THU	19:00	휴먼 Human 12 E	188'	
	10:00	포커스 - 쟁점 2016 단편 Focus - Controversy 2016 Shorts 12 ND E	79'	
	12:00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Nostalgia for the Light 12 E	90'	
	14:30	점보 와일드 Jumbo Wild G E	60'	
	17:00	앤츠 온 어 쉬림프 Ants on a Shrimp 12 E	88'	
19:30	환상의 섬 Isla Bonita 18 E	101'		

인디스페이스 INDIESPACE

	Time	Title	R/T	GT
7 SAT	10:00	국제환경영화경선 단편 1 Green Competition Shorts 1 G N E	75'	
	12:00	소년, 달리다 Boys Run G E	104'	●
	15:00	움켜쥔 땅 Land Grabbing 12 E	94'	
	17:00	스톱 STOP 18 E	85'	●
	19:30	핵마피아 The Nuclear Mafia 12 N	115'	●
8 SUN	10:00	철장을 열고 Unlocking the Cage G E	91'	
	12:00	국제환경영화경선 단편 2 Green Competition Shorts 2 12 E	90'	●
	14:30	카르텔 랜드 Cartel Land 18 E	98'	
	17:00	개미무덤 Anthill 12 E	83'	
9 MON	19:30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How to Change the World 12 E	109'	●
	10:00	뱅킹 네이처 Banking Nature 12 E	90'	
	12:00	예스맨 프로젝트 2 The Yes Men Are Revolting 12 E	91'	
	14:30	해파리의 노래 Song of a Jellyfish 12 E	98'	●
	17:00	내사랑 한옥마을 Dearest, Hanok Village G N	92'	●
10 TUE	19:30	환상의 섬 Isla Bonita 18 E	101'	
	10:00	메신저 The Messenger 12 E	90'	
	12:00	고기라 불리는 동물들 + 인사이드 퍼 Animals Labelled as Meat + Inside Fur 12 E	67'	
	14:30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This Changes Everything G E	89'	
	17:00	언브랜디드 Unbranded G E	105'	
11 WED	19:30	철장을 열고 Unlocking the Cage G E	91'	
	10:00	얼룩진 하늘 - 보이지 않는 위험 OVERCAST - An Investigation into Climate Engineering 12 E	78'	
	12:00	뱅킹 네이처 Banking Nature 12 E	90'	
	14:30	내사랑 한옥마을 Dearest, Hanok Village G N	92'	
	17:00	움켜쥔 땅 Land Grabbing 12 E	94'	
12 THU	19:30	핵마피아 The Nuclear Mafia 12 N	115'	
	10:00	헤일 + 트랜스휴먼스 Hail + Transhumance 12 E	81'	
	12:00	에코그라운드 단편 Eco-Ground Shorts G E	76'	
	14:00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How to Change the World 12 E	109'	
	17:00	깜짝상영 TBA		
19:30	스톱 STOP 18 E	85'		

스폰지하우스 Sponge House

	Time	Title	R/T	GT
7 SAT	10:00	아이 엠 더블린 I Am Dublin G E	75'	
	12:00	하얀 이끼 White Moss 15 E	100'	
	14:30	언브랜디드 Unbranded G E	105'	
	17:00	홀리건 스페로우 Hooligan Sparrow 15 E	84'	
	19:30	헤일 + 트랜스휴먼스 Hail + Transhumance 12 E	81'	●
8 SUN	10:00	얼룩진 하늘 - 보이지 않는 위험 OVERCAST - An Investigation into Climate Engineering 12 E	78'	
	12:00	트리 인 더 씨 + 나미브 사막의 사자들 A Tree in the Sea + Vanishing Kings - Lions of the Namib G E	71'	
	14:30	킬링 타임 Killing Time 12 E	88'	
	17:00	텅 빈 하늘 Emptying the Skies G E	78'	●
9 MON	19:30	깊은 곳에서 From the Depths 12 E	72'	
	10:00	베헤모스 Behemoth 12 E	90'	
	12:00	국제환경영화경선 단편 1 Green Competition Shorts 1 G ND E	75'	
	14:30	깨어나는 도시 Awakening City 12 E	100'	
	17:00	땅을 사라 Change of Hands 12 E	66'	
10 TUE	19:30	살레로 Salero G E	76'	
	10:00	깊은 곳에서 From the Depths 12 E	72'	
	12:00	국제환경영화경선 단편 2 Green Competition Shorts 2 12 E	90'	
	14:30	홀리건 스페로우 Hooligan Sparrow 15 E	84'	
	17:00	아이 엠 더블린 I Am Dublin G E	75'	
11 WED	19:30	호수의 딸 Daughter of the Lake 12 E	87'	
	10:00	살레로 Salero G E	76'	
	12:00	베헤모스 Behemoth 12 E	90'	
	14:30	깨어나는 도시 Awakening City 12 E	100'	
	17:00	돌고래와 나 Dolphin and Me G E	60'	
12 THU	19:30	그림에도 불구하고 Still and All 12 E	93'	
	12:00	해파리의 노래 Song of a Jellyfish 12 E	98'	
	14:30	개미무덤 Anthill 12 E	83'	
	17:00	킬링 타임 Killing Time 12 E	88'	
19:00	노동자의 죽음 Workingman's Death 15 E	120'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Time	Title	R/T	GT
7 SAT	10:00	바다의 노래:벤과 셸키요정의 비밀 Song of the Sea G E	93'	
	12:00	나의 언덕이 푸르러질 때 Where the Hills Are Greener G E	78'	
	14:30	랜드필 하모니 Landfill Harmonic G E	84'	
	17:00	핵의 봉인 Containment 12 E	82'	
	19:30	땅을 사라 Change of Hands 12 E	66'	
8 SUN	10:00	에이프릴과 조작된 세계 April and the Extraordinary World 12 E	105'	
	12:30	고기라 불리는 동물들 + 인사이드 퍼 Animals Labelled as Meat + Inside Fur 12 E	67'	●
	14:30	그림에도 불구하고 Still and All 12 E	93'	●
	17:00	깨어난 침묵 After Breaking the Silence 12 N	80'	●
9 MON	19:30	한국 환경영화의 흐름 단편 Green Panorama in Korea Shorts G ND E N	69'	●
	10:00	문명의 저편 단편 The Other Side of Civilization Shorts G ND E	99'	
	12:30	공존의 삶 단편 Coexistence Zone Shorts G ND E	83'	
	14:30	핵의 봉인 Containment 12 E	82'	
	17:00	포커스 - 쟁점 2016 단편 Focus - Controversy 2016 Shorts 12 ND E	79'	●
10 TUE	19:30	나의 언덕이 푸르러질 때 Where the Hills Are Greener G E	78'	
	10:00	랜드필 하모니 Landfill Harmonic G E	84'	
	12:30	에이프릴과 조작된 세계 April and the Extraordinary World 12 E	105'	
	15:00	에코그라운드 단편 Eco-Ground Shorts G E	76'	
	17:00	텅 빈 하늘 Emptying the Skies G E	78'	
11 WED	19:30	깨어난 침묵 After Breaking the Silence 12 N	80'	
	10:00	바다의 노래:벤과 셸키요정의 비밀 Song of the Sea G E	93'	
	19:00	예스맨 프로젝트 2 The Yes Men Are Revolting 12 E	91'	
12 THU	10:00	트리 인 더 씨 + 나미브 사막의 사자들 A Tree in the Sea + Vanishing Kings - Lions of the Namib G E	71'	
	12:00	공존의 삶 단편 Coexistence Zone Shorts G ND E	83'	
	14:30	소년, 달리다 Boys Run G E	104'	
	17:30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This Changes Everything G E	89'	
	19:30	호수의 딸 Daughter of the Lake 12 E	87'	

13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제13회 서울환경영화제

티켓 구입 안내

티켓 금액

일반 상영	5,000원	일반
단체 할인	2,500원	

※ 단체 할인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불가)

온라인 예매

장소	운영기간	예매방법	비고
씨네큐브	05.02 (월) ~ 05.12 (목)	• 씨네큐브 홈페이지 • 맥스무비 • 예스24 • 인터파크 • 네이버 영화 • 다음 영화 접속 후 이용	• 운영기간 중 24시간 예매 가능 • 해당 상영관 상영작 예매만 가능 • 사이트 별 예매 특징 (씨네큐브, 맥스무비) 1인 1회 8매, 좌석선택 가능 (인터파크) 1인 1회 4매, 좌석선택 가능 (예스24,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1인 1회 4매, 좌석선택 불가
인디스페이스		• 맥스무비 • 예스 24 • 네이버 영화 • 다음 영화 접속 후 이용	
스폰지하우스			
서울역사박물관		온라인 예매 불가	• 서울역사박물관은 공공기관 특성상 무료로 운영 • 좌석선택 불가능
결제수단	• 신용카드나 기타 온라인 결제 (티켓교환권, 영화관람권, 문화상품권 사용 불가)		
발권방법	• 각 극장 매표소에서 예매번호/신분증 제시 후 티켓 발권 • 씨네큐브 상영관 영화에 한하여 씨네큐브 내 무인발권기를 이용하여 티켓 발권 가능		
환불 및 교환	• 각 예매 사이트 규정에 따름 • 상영시작 후 환불 및 교환 불가		

현장 예매

장소	운영기간	운영시간	예매방법	비고
씨네큐브	05. 07 (토) ~ 05. 12 (목)	09:30 ~ 20:00	씨네큐브 매표소	해당 상영관 상영작 예매만 가능 (타 극장 이용 불가)
인디스페이스			인디스페이스 매표소	
스폰지하우스			스폰지하우스 매표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내 서울환경영화제 티켓 부스	
결제수단	• 신용카드, 현금, 티켓교환권 (영화관람권, 문화상품권 사용 불가)			
환불 및 교환	• 환불 및 교환은 영화 상영시작 20분 전 까지 가능 (티켓교환권 이용 시 발권 후 환불 및 교환 불가) • 모든 예매의 부분 취소 불가 (부분 취소를 원할 경우, 전체 예매 취소 후 다시 예매)			

※ ID카드 소지자는 해당 상영관 내 '서울환경영화제 티켓 부스'에서 현장 예매만 가능

티켓 구입 시 유의사항

- 개막작은 초청으로만 진행되어, 티켓 구매가 불가합니다.
- 티켓 구매 및 입장은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 환불 및 교환은 영화 상영시작 20분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 후 현장에서 발권한 티켓은 현장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티켓 취소 시, 해당 전부를 반드시 지참)
- 해당 일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분실 및 파손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매진작은 현장 판매 분이 발생할 경우, 상영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 영화제 사정에 따라 상영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폐막일까지 '서울환경영화제 티켓 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 잔액 환불 가능합니다.

상영관 유의사항

1) 서울환경영화제는 정식 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영이 시작된 후에는, 이후 1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상영시작 후 입장의 경우, 지정 좌석 착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입장은 삼가 주시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재입장만 허용 됩니다.
- ※ 먼저 관람하고 계산 관객들을 위한 방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서울환경영화제에서는 음식을 반입이 제한됩니다.

- 상영관 내 음식물 반입은 불가하며 쓸을 위험이 있는 음료도 반입이 제한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 가능 : 뚜껑이 있는 생수 및 음료
- 반입 불가 : 쓸을 위험이 있는 음료 및 팝콘, 과자 등 모든 음식물

3) 서울환경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 중 촬영을 금지합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꺼주시고, 카메라 및 캠코더 소지는 허용하나 촬영은 금지합니다.
- 영상 촬영 적발 시, 촬영 파일 삭제 및 퇴장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4) 서울환경영화제는 관람등급을 준수하며,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시에도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입장 및 관람이 불가합니다.
- 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소란에 따른 퇴장조치를 보호자가 동의할 시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상영관 입장은 관람등급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며, 상황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서울환경영화제는 상영관 입장 시, 반드시 티켓을 확인합니다.

- 티켓을 소지하셔야 상영관 입장 및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 ID카드, 티켓교환권 및 예약 확인증으로는 상영관 입장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티켓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 티켓 분실 및 파손 시, 재발권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cketing Information

Ticket Price

General Screening	5,000 KRW	
Group Discount	2,500 KRW	Groups of 10 or more attending the same screening

※ Group discount is available when it's paid only by cash, not credit cards.

Online Ticketing

Venue	Period	How to Reserve Ticket	Notes
Cinecube	May 2 (Mon)	Via online ticketing sites • Cinecube • Maxmovie • Yes24 • Interpark • NAVER Movie • Daum Movie	• 24 hours available during the online ticketing period. • Ticketing available at each theater of the films only. Please note the following restrictions: <Cinecube, Maxmovie> – Up to 8 tickets per person – Seat reservations available <Interpark> – Up to 4 tickets per person – Seat reservations available <Yes24, NAVER Movie, Daum Movie> – Up to 4 tickets per person – Seat reservations unavailable
INDIESPACE	~ May 12 (Thu)	Via online ticketing sites • Maxmovie • Yes24 • NAVER Movie • Daum Movie	
Sponge House			
Seoul Museum of History		• Online ticketing is not available	• Admission to screenings at the Seoul Museum of History is free. • Seating is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and subject to capacity.
Payment	• Credit cards and other forms of online payments are accepted. • GFFIS tickets, Gift tickets and Certificates are not acceptable.		
How to Receive	• Pick up tickets at Box Office on the venue with a valid ID or reservation number. • Visitors to Cinecube can also use the quick ticket machines.		
Cancellation and Refund	•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each ticketing site. • No cancellation or refund after screening starts.		

Onsite Ticketing

Venue	Period	Hours	How to Reserve Ticket	Notes
Cinecube			Cinecube Box Office	Ticketing available at each theater of the films only.
INDIESPACE	May 7 (Sat)	09:30	INDIESPACE Box Office	
Sponge House	~ May 12 (Thu)	20:00	Sponge House Box Office	
Seoul Museum of History			You must get a ticket at onsite GFFIS Box Office to enter.	
Payment	• Credit cards, cash, GFFIS tickets (Gift tickets and Certificates are not acceptable.)			
Cancellation and Refund	• Refunds and cancellations must be made no later than 20 minutes prior to the start of the film. Tickets purchased with GFFIS tickets are non-refundable and non-changeable. • Partial cancellations cannot be made.			

※ ID card holders and GFFIS ticket holders must get a ticket at GFFIS Box Office to enter.

Notice

- Admission to the screening of Opening Film is by invitation only.
- Ticket holders will not be admitted into the theater 10 minutes after the start of the film.
- Refunds and cancellations must be made no later than 20 minutes prior to the start of the film.
- Tickets purchased online and issued onsite cannot be cancelled online. You must return the issued tickets for their refunds or cancellations.
- Tickets are only available for the screenings for which they are issued. Tickets cannot be reissued if lost or damaged.
- Once tickets are sold out online, there may be a limited number of tickets available at the onsite box office on the day of the screening.
- When a screening is cancelled or rescheduled, tickets will be refunded in full at the GFFIS Box Office until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Theater Policies

- 1) The Festival strictly adheres to the published schedule.**
 - Ticket holder will not be admitted after the first 10 minutes of the screening.
 - Once the screening starts, your seat reservation cannot be guaranteed.
 - You may not re-enter the theater during the screening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 2) Food and drinks are not permitted into the theater.**
 - Please note that food and drinks cannot be brought into the theatre except for bottled water.
- 3) Photography is prohibited during the screening.**
 - Please ensure your mobile phones are switched off.
- 4) In compliance with given ratings, the Festival restricts entry for children under 5 years old.**
 - Those under the age of 18 will be admitted for R-rated films even in the company of an adult.
 - Parents or guardians wishing to enter the theater with children under 5 years old must agree to leave the theater if the children make too much noise.
 - The Festival strictly enforces the ratings policy and visitors may be asking for show their IDs.
- 5) A valid ticket must be produced to gain entry into the theater.**
 - ID, reservation numbers or GFFIS tickets are accepted in lieu of tickets.
 - Tickets cannot be reissued if lost or damaged.

그린토크 Green Talk

그린토크 ① Green Talk 1

환경과 역사의 관계 - 파트리시오 구스만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History - Patricio GUZMÁN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는 화석연료를 토대로 산업화를 추구해온 서구 선진국가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개발의 후유증은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파트리시오 구스만 감독의 2부작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Industrialization based on fossil fuels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issues faced by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the after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seriously appear from the 3rd world countries. Talk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se problems through Patricio GUZMÁN's two films.

장소 Venue 씨네큐브 Cinecube
일시 Time 2016.5.8 (Sun) 18:30 ~ 20:00
발제 Presenter 김성욱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 디렉터
 KIM Sung-wook Program Director, Seoul Art Cinema

그린토크 ② Green Talk 2

세계화의 오늘 - 미카엘 글라보거를 중심으로

The Present of Globalization - Michael GLAWOG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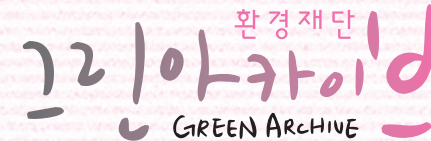
전세계를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재편한 신자유주의적 질서 하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악화일로에 있다.

세계 도처의 삶의 현장에 카메라를 세웠던 미카엘 글라보거 감독의 '세계화 3부작'을 통해 현대인의 삶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Workingmen's life is going steadily downhill under the neoliberal order reorganized entire world into single large market. Talking the modern people's life and labor condition through the Michael GLAWOGGER's Globalization Trilogy mainly focusing on places of life from every parts of the world.

장소 Venue 씨네큐브 Cinecube
일시 Time 2016.5.9 (Mon) 16:40 ~ 18:10
발제 Presenters 김동령, 박경태 <거미의 땅> 감독, 맹수진 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
 KIM Dong-ryong, PARK Kyoung-tae Director, *Tour of Duty*, MAENG Soojin Programmer, GFFIS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우리 곁의 초록빛 영화관 The nearby green cinema reminding the preciousness of nature and life, GREEN ARCHIVE



환경재단 그린아카이브는 우수한 환경영상물을 확보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서울환경영화제가 운영하는 환경영상자료원입니다. '기록저장소'를 뜻하는 '아카이브'에 환경을 뜻하는 '그린'을 붙인 이름을 걸고, 다양한 영상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아카이브는 2004년 이후 매년 서울환경영화제를 통해 제작된 영화는 물론 국내외에서 출품된 우수 환경영상 콘텐츠를 선별해 상영권을 확보, 현재 310편에 이르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들의 열람, 대여, 상영회 개최와 지원, DVD제작과 보급 등을 통해 매년 1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Green Archive is the archive for the audiovisual contents with environmental themes, run by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to secure and distribute the quality environmental audiovisual materials. The name was born as the combination of 'archive' meaning storage of record and 'green' symboliz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archive is conducting many audiovisual projects.

Since 2004 Green Archive has been acquiring the screening rights of quality contents of environmental theme including the films produced by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and now has secured the rights of more than 310 films under its slate. The archive is also providing the environmental education to more than 10,000 citizens annually through the viewing, rental, organizing and support of screenings, and the fabr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DVDs of these titles in addition to spreading the green message.

온라인 환경교육 '숲과 나'

Online Environmental Education, 'Forests and I', www.forestsandi.org

그린아카이브가 2012년 8월 처음 선보인 '숲과 나'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환경편영화물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감상할 수 있는 환경교육 홈페이지입니다. '숲과 나'는 57편의 주제별 환경영화는 물론 학교나 교육기관, 공동체의 환경관련 활동 및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들을 제공합니다. 2016년 4월 현재 5,000명의 회원이 '숲과 나'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Forests and I', launched in August 2012, is online environmental education site run by Green Archive, for providing the short films with environmental themes viewable via streaming online. 'Forests and I' offers 57 short films with eco-themes as well as the visual ads which can be used at the environment-related class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co-activities. Currently, more than 5,000 subscribers are using the streaming service on 'Forests and I' website.

그린아카이브 Green Archive
 Tel 82 2 2011 4374
 E-mail archive@greenfund.org
 Website http://greenarchive.kr

개막식 Opening Ceremony
2016. 5. 6 (Fri) 19:00 씨네큐브 Cinecube

시상식 Award Ceremony
2016. 5. 10 (Tue) 19:30 씨네큐브 Cinecube

개막작

5/6 19:00 Cinecube, 5/8 14:30 Cinecube

다음 침공은 어디? Where to Invade Next

마이클 무어 Michael MOORE | USA | 2015 | 120' | Documentary

아카데미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자인 마이클 무어는 펜타곤에 자기가 한 명의 전사가 되어 멀리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이 미션에는 세가지 규칙이 있다. 누구에게도 총을 쓰지 말 것, 기름을 약탈하지 말 것, 그의 친애하는 미국인들에게 유용한 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 사실 이 탐사에는 그가 계획한 또 다른 미션이 숨어 있었다. 이 지구상 어디인가에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풀어줄 해결책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더 나은 삶과 노동환경이 보장되는 곳의 샘플을 모으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휴가제도, 프랑스의 학교 급식, 핀란드의 교육제도, 독일이 과거의 잘못에 접근하는 법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양성평등까지. <화씨 9/11>과 <볼링 포 콜럼바인>의 감독이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감독 특유의 파괴적이고 유쾌한 느낌으로 전달한다. 이 발랄하면서도 사려깊은 세계 정복의 결과가 바로, 미국에 관한 영화이면서도 단 한 장면도 미국에서 촬영되지 않은 영화다.

Oscar-winning documentary filmmaker Michael MOORE makes an offer to the Pentagon to immediately take on the task of invading faraway countries as a one-man army. There are three rules in the film director's campaign: don't shoot anyone, don't plunder any oil, bring back something useful for his fellow-Americans. His research trip in fact serves another agenda of his own devising: he is convinced that somewhere in the world, solutions already exist for the USA's pressing social problems. And so he collects examples of a better quality of life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elsewhere – such as Italy's holiday entitlement regulations, France's school meals, Finland's education system, Germany's approach to accounting for its past, and Iceland's gender equality. The director of *Fahrenheit 9/11* and *Bowling for Columbine* represents his country's interests in his usual subversive but also cheerful manner. The result of this upbeat yet thoughtful global invasion is a film about the USA that was made without filming a single shot on American soil.

마이클 무어 Michael MOORE

<볼링 포 콜럼바인>(2002)로 아카데미 장편다큐멘터리상 수상, <화씨 9/11>(2004)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후 <식코>(2007),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2009) 제작 후 6년 만에 새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를 내놓았고,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월드프리미어로 상영, AFI,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Born in Flint, USA in 1954, he made his first film, *Roger & Me*, which gave birth to the modern-day documentary movement. MOORE went on to break the documentary box office record two more times with the Oscar-winning film, *Bowling for Columbine* and the Palme d'Or-winning *Fahrenheit 9/11*. Other notable films include the Oscar-nominated *Sicko* and *Capitalism: A Love Story*. *Where to Invade Next* was screened at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Berlinale.



Opening Film

Green Competition

국제환경영화경선

지난 1~2년 사이에 제작된 국내외 뛰어난 환경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환경영화경선은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와, 주제를 뒷받침하는 영화미학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의 발굴, 소개를 목표로 한다. 1백만 원부터 1천만 원에 이르는 상금 제도를 통해 환경영화의 지속적인 제작과 배급을 독려하고자 한다.

Green Competition set up with the mission to discover and to introduce outstanding domestic and overseas environmental films made within the course of 1-2 years, aims to find and to highlight films with insightful messages on the environment as well as cinematic aesthetics that correspond well with a certain theme. The cash award ranging from 1 million KRW to 10 million KRW is to promote the consis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films.

개미무덤 Anthill

블라디미르 로기노브 Vladimir LOGINOV | Estonia | 2015 | 83' | Documentary

크고 밀집된 주차장, 700개의 작은 창고로 이뤄진 이 폐쇄된 주차장은 특별한 목적으로 모여든 러시아 남성들에게 점령되어 있다. 어떤 이에게 이곳은 그저 차량 작업을 위한 공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휴가용 별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우나이기도 하다. 블라디미르 로기노브는 뛰어난 유머감각과 부조리의 감각으로 여기 개미 무덤에 모인 사람들이 간혀 있는 현실과 잃어버린 제국(구 소비에트)에 대한 향수를 관찰한다.

A large, built-up parking complex, though shut down, is home to lock-up garages occupied by the Russian members of a very particular men's 'club': some of them work on their vehicles here, others have turned it into a holiday home, a sauna, etc. With humor and an accomplished sense of the absurd, Vladimir LOGINOV observes this anthill in which everyone tinkers with reality or their nostalgia for a lost empire.



5/8 17:00 INDIESPACE
5/12 14:30 Sponge House

깨어나는 도시 Awakening City

페르난도 라모스 Fernando RAMOS | Brazil | 2015 | 100' | Documentary

<깨어나는 도시>는 현대 도시에서 공공장소의 역할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보여준다. 차와 사람, 쇼핑물과 공원/광장,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소비자와 시민, 파괴적 도시화와 녹색 공간들 간의 갈등 등이 그 예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국제적인 사례들, 전략들, 그리고 도시의 권리를 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안들을 다룬다.

Awakening City presents a universal debate on the role of public spaces in contemporary cities, the conflicts of cars against people; malls against parks and squares; private against public; consumer against citizen; destructive urbanism against green areas. The documentary provides a set of international cases, strategies and proposals aiming full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5/9 14:30 Sponge House
5/11 14:30 Sponge House

베헤모스 Behemoth

자오 리앙 ZHAO Liang | China, France | 2015 | 90' | Documentary

구약 성서에서, 산은 베헤모스라는 이름의 괴수가 거주하는 곳이다. 현대에 와서는 거대한 광산 기업들이 괴수의 공간을 차지했다.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은 감독은 사적이고 명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지옥으로 변해버린 중국의 낙원 찾기에 대한 그의 성찰을 공유한다. 전설 속의 괴수는 한 번이라도 이런 꿈을 꾸 적이 있었을까?

In the Old Testament, the mountains are the domain of a monster named Behemoth; in modern times the vast mining industry has taken the monster's place. Inspired by Dante's *Divine Comedy*, director ZHAO Liang shares his poetic reflections on China's search for a paradise, one that has ended up being something a lot more like hell. Could the mythical monster have ever dreamed of this?



5/9 10:00 Sponge House
5/11 12:00 Sponge House

소년, 달리다 Boys Run

강석필 KANG Seok-pil | Korea | 2015 | 104' | Documentary

16살 소년 민수와 상호는 마을에서 함께 자랐다. 어느 여름날 그들은 특별한 여행을 떠난다. 자전거로 유럽을 돌며 사부와 함께 태권 시연을 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그들은 사부를 배신하고 자신들만의 여행길로 뛰어버린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그들은 사부를 다시 마주하지만 그들의 내일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열일곱 사춘기 소년에서 스물셋 청년이 되기까지, 그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The sixteen years old boys Min-soo and Sang-ho have grown up in the same community. One summer day, they leave for a special tour. It's month's bike riding through Europe demonstrating Korean martial arts, Taek-kyeon. However, they betray the master en route and go on their own way. Time passes and they're about to turn twenty. But they are not convinced what to do in the future.



5/7 12:00 INDIESPACE
5/12 14:30 Seoul Museum of History

카르텔 랜드 Cartel Land

매튜 하이네만 Matthew HEINEMAN | USA, Mexico | 2015 | 98' | Documentary

멕시코 미초아칸주의 호세 미렐레스 박사는 'El Doctor'로 알려진, 작은 마을의 의사이다. 그는 수년 동안 이 지역을 망가뜨린 잔혹한 마약 조직 나이트 템플러에 맞서는 시민들의 자경단 (Autodefensas)을 이끌었다. 'El Doctor'와 마약 카르텔은 제도가 실패한 사회에서 서로 자신들이 '정의'라고 주장하며 이 브랜드를 갖기 위해 싸운다. <카르텔 랜드>는 질서가 무너지고 선과 악이 불분명한 세계에 대한 섬뜩한 성찰이다.

In the Mexican state of Michoacán, Dr. Jose MIRELES, a small-town physician known as 'El Doctor', leads the Autodefensas, a citizen uprising against the violent Cartels Templar drug cartel that has wreaked havoc on the region for years. El Doctor, and the cartel each vie to bring their own brand of justice to a society where institutions have failed.



5/8 14:30 INDIESPACE
5/11 12:00 Cinecube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How to Change the World

제리 로스웰 Jerry ROTHWELL | UK, Netherlands | 2015 | 109' | Documentary

1971년, 한 무리의 친구들이 핵실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시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그린피스를 탄생시키고 그로부터 현대 환경운동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미디어를 영리하게 이용했던 이 선구자들은 운동가로서의 모험들을 힘겹게 16mm 필름에 담아냈다. 이 통찰력 있는 작품은 정치와 개인의 균형을 찾기 위한 투쟁에 대한 생생하고 감동적인 성찰이다.

In 1971, a group of friends sail into a nuclear test zone and their protest captures the world's imagination, giving birth to Greenpeace and defining the modern green movement. Media savvy from the beginning, these pioneers captured their seat-of-their-pants activist adventures on 16mm film. This insightful film is a vibrant, moving reflection on the struggle to balance the political and the personal.



5/8 19:30 INDIESPACE
5/12 14:00 INDIESPACE

움켜쥔 땅 Land Grabbing

쿠르트 랑바인 Kurt LANGBEIN | Austria | 2015 | 94' | Documentary

"땅을 사라, 땅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 - 마크 트웨인

이 세상의 농지는 위협에 처했다. 투자자들이 수출과 바이오 연료를 위한 농작물을 기르거나 단순히 이익을 위해 땅을 구입하면서 땅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영화는 국제 농경 사업 내 투자자들의 세계와, 토의 정치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 <움켜쥔 땅>은 유럽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며 투자자들과 그들의 행위에 도전한다.

"Buy land, they're not making it anymore." - Mark TWAIN

The world's farmland is at risk. Demand for land has soared as investors look for places to grow food for export, grow crops for biofuels or simply buy up land for profit. The film gives an inside look into the world of investors in the international agro-business and how the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is involved.



5/7 15:00 INDIESPACE
5/11 17:00 INDIESPACE

메신저 The Messenger

수 리나드 Su RYNARD | Canada, France | 2015 | 90' | Documentary

<메신저>는 송버드의 개체 수 감소 이유를 고찰하고 이러한 현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영화이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시각적으로 황홀한 여행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새들에게 막힌 문체가 지구와 우리 자신에게도 버거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폭로한다.

The Messenger is an artful investigation into the causes of songbird mass depletion and the compassionate people who are working to turn the tide. The film takes viewers on a visually stunning journey revealing how the problems facing birds also pose daunting implications for our planet and ourselves.



5/7 17:00 Cinecube
5/10 10:00 INDIESPACE

5/7 19:30 Sponge House, 5/12 10:00 INDIESPACE

헤일 Hail

앙헬 리나레스 Ángel LINARES | Serbia | 2015 | 18' | Documentary

스타카는 우치체의 고티머리에 살고 있는 나이든 여자 농부이고, 네마냐는 세르비아 동쪽 작은 도시 근처의 산 꼭대기에 위치한 수문기상학 센터의 직원이다. 그들의 삶은 날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과 대치,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매우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Stanka is an old lady farmer that lives in the edge of Uzice and Nemanja is an employee of the Hydrometeorological Center that is located in the top of a mountain near the same small city of eastern Serbia. Their lives are linked by the weather and a very unusual way to express their love for the nature, the land and the people surrounding.



트랜스휴먼스 Transhumance

로베르토 자짜라 Roberto ZAZZARA | Italy | 2015 | 63' | Documentary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을 경험하라: Transhumance. (이동 방목) 수천 년 동안 가축과 인간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풀과 땅으로 이루어진 길을 함께 걸어왔다. 인간이 가축을 더 빠르게 이동시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동물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간은 그 길을 걸어야 할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걷기에 대한 영화이며, 다큐멘터리이면서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영화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에 섰을 때의 느낌을 묘사한다. 여전히 지도에 있지만, 더는 존재하지 않는…….

Experience the oldest travel of the world: Transhumance. Since millenniums, livestock and humans used to seasonally share the same road made of grass and ground. Now animals don't need to walk through it, because human technology has found faster ways to move them. But humans still have the ancestral need to walk through it. On a road that is still on maps, but that doesn't exist anymore.



5/7 10:00 INDIESPACE, 5/9 12:00 Sponge House

해가 뜨는 날 *Insolation*

레아 파브르케트 Léa FABREGUETTES | France | 2015 | 6' | Animation

일 년 내내 어둡지만 한 세상에서, 단 하루 해가 뜨는 날은 중요한 날이다. 이날이 바로 내일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변으로 모여들고, 이날을 함께 살기 위해 기다린다.

When the world is in the dark all year long, the only sunny day is an important event. This day is tomorrow. Thousands of people gather on the beach, waiting to live this day together...



루센스 *Lucens*

마르셀 바렐리 Marcel BARELLI | Switzerland | 2015 | 6' | Animation, Documentary

100%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이야기.

The story of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100% made in Switzerland... but also the last.



주석소년 *The Tin Boy*

리안 아프리안시아 Rian APRIANSYAH | Indonesia | 2015 | 17' | Fiction

앙드레는 방카 섬에 사는 아이이다. 그는 휴대전화를 쓰는 친구들이 부럽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앙드레는 주석 탄광을 통해 돈을 번다. 이 영화는 감독이 어린 시절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Andre is a child who lives on Bangka Island. Andre envies of his friends who use mobile phones. Every day after school, Andre begins to earn money by mining tin. This film is taken from the life story of the director's childhood.



레드엔드와 식물공장 *Red-end and the Factory Plant*

로빈 누다, 베타나 드 포레스트 Robin NOORDA, Bethany de FOREST
Netherlands | 2015 | 16' | Animation

레드엔드의 절친인 레드백은 숲 속에서 붉은 고추를 찾아야 한다. 그는 식물식물들의 거대한 바이오산업단지를 발견하지만 식물식물에 잡혀 노예 개미들이 일하는 고기공장으로 끌려간다. 불안한 꿈을 꾸 레드엔드는 친구를 찾아나선다. 그는 고기공장을 파괴하고 레드백과 노예 개미들을 구출한다.

Redback, best friend of Red-end, has to find red peppers in the wood and discovers a gigantic bio-industry of carnivorous plants. However, he gets captured in one of the pitcher plants and is brought to the meat factory by slave ants. Red-end is having an alarming dream and starts chasing his friend. By sabotaging the meat factory, they set Redback free and rescue the slave ants.



산불과 사람들 *Mountain Fire Personnel*

알렉스 타이슨 Alex TYSON | USA | 2015 | 30' | Documentary

이 영화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일어난 산불에 대한 실험적 다큐멘터리이다. 소방관들과 의료원들의 기록, ENG장면, 단파라디오 기록들, NOAA 인공위성 이미지, 날씨 모니터링 웹 캠, 시민저널리스트들의 휴대전화기록 등, 가능한 모든 미디어의 클라주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조명하는 영화.

Mountain Fire Personnel is an experimental documentary that explores a wild fire in Southern California. The film integrates over 30 sources of media, including recordings by firefighters, paramedics, ENG footage, shortwave radio reports, NOAA Satellite imagery, weather monitoring webcams, and cellphone reports by citizen journalists. Through a collage of the available media for the wild fire, which burned over 27,000 acres of land, this film investigate the role of human intervention in natural disasters.



겨울 감나무 *The Lasting Persimmon*

치카우라 케이 CHIKAURA Kei | Japan | 2015 | 15' | Fiction, Documentary

리사키는 도쿄에서 400km 떨어진 시골에 있는 고향 야마가타로 돌아온다. 늘 그랬듯 그녀와 가족과 눈으로 둘러싸인 고향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눈을 쓸고, 피클을 만들고, 큰 강 위의 다리에는 눈이 쌓여있고, 아직 따지 않은 감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

Risaki is coming back home to her wintery countryside, Yamagata which is 400km away from Tokyo. There is seemingly unchanging snowy life of her beloved family and home village—snow shoveling, making pickles, bridges over a big river covered with snow, and kaki fruits left unharvested on its tree.



피고인들 *Defendant 5*

하이다 리 더글라스 Heidi Lee DOUGLAS | Australia | 2014 | 30' | Documentary

영화감독 하이다는 고대 숲의 파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태즈메이니아로 간다. 벌목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거대 벌목 회사인 Gunns Ltd는 기업 비즈니스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하이다와 19명을 고소한다. 하이다는 Gunns측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그녀의 촬영 분을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녀는 이 통제불능의 기업과 싸우는 자신의 투쟁을 기록함으로써 이들에게 대응한다.

Young filmmaker Heidi Lee DOUGLAS goes to Tasmania to make a documentary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island's ancient forests. As anti-logging protests escalate, logging giant Gunns Ltd reacts to public pressure by suing Heidi and 19 others for \$6.4 million for allegedly conspiring to destroy the company's business. Her response is to turn the camera on herself to document her personal struggle as she goes into battle against a corporation out of control.



목화의 꿈 *CottonDreams*

산딕 람팔 발라라 Sandeep Rampal BALHARA | Poland | 2014 | 15' | Documentary

경제성장과 지나친 바이오산업 추진의 폐해로 인도 농부들은 세계 최악의 농업 위기를 맞게 된다. <목화의 꿈>은 그런 한 가족을 파고들며 인도 농장의 극단적 생활 조건 아래서의 사랑, 삶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The side effects of a growing economy and extensive use of biotechnology pushed Indian farmers into the world's greatest agrarian crisis. *CottonDreams* delves into life of one such family and brings out a tragic tale of love, life and sacrifice under extreme living conditions in rural India.



지나간 미래 *Swayer Corporations*

라빈드란 R 프라사드 Rathindran R PRASAD | India, Turkey | 2015 | 30' | Fiction

젊은 환경운동가가 화학 회사의 CEO를 죽이려는 여정에 오른다. 도중에 그는 미스터리한 노인을 만나고 그들의 대화가 계속될수록 그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A young environmental activist is on journey to kill a CEO of a chemical company. On his way he meets a mysterious old man. His world starts to crumble as conversations continue.



Green Panorama in Korea

한국 환경영화의 흐름

관객에게는 한국 환경영화를 알리고, 환경영화를 만드는 국내 감독 및 제작자들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창구로 마련된 부문이다.

This section serves as a window to promote Korean environmental films, and to encourage domestic film directors and producers to complete their projects despite challenging conditions as well as introduce their accomplishments.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and All

김영조 KIM Young-jo | Korea | 2015 | 93' | Documentary

47년 만에 영도다리가 개통되면서 화려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영도. 그러나 이곳에는 갑자기 쏟아진 관심과 새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희망은 이곳에서 계속 자신들의 삶을 이어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바람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게 되는데…….

Yeongdo is receiving considerable spotlight again with the re-opening of the Yeongdo Bridge in 47 years. But despite the sudden attention, there are people who steadfastly go about their lives. They hope of nothing but continuing their lives in this place. Nevertheless, the wind of change is calling for something else……



5/8 14:30 Seoul Museum of History
5/11 19:30 Sponge House

깨어난 침묵 After Breaking the Silence

박백일 PARK Bae-il | Korea | 2016 | 80' | Documentary

카메라를 뻗히 보고 있던 노동자들이 억눌렸던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2014년 4월 26일 생탁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노동 3권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지역 유지로 구성된 사자들의 압력 때문에 주요 언론은 그들의 투쟁을 외면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설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외치지만, 법과 자본, 사람들의 무관심과 가족의 외면은 그들의 외침을 집어삼켜 버린다.

A group of workers stare right into the camera as they relate their innermost thoughts they've kept inside. On April 26th, 2014, workers at a Korean rice wine factory demanding the company to guarantee their three rights to work,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food safety enter a strike. But pressure from the company owners has the major press ignore their fight. The workers continuously shout their stories only to be stifled by the law, capital, people's indifference and their family turning their backs on them.



5/8 17:00 Seoul Museum of History
5/10 19:30 Seoul Museum of History

내사랑 한옥마을 Dearest. Hanok Village

김정인 KIM Jungin | Korea | 2016 | 92' | Documentary

아빠는 2년 전 전주한옥마을에서 한지를 이용한 사진인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가게는 한옥마을의 아이코닉으로 칭송받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창조경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순항을 거듭하던 사업은 뜻밖의 암초를 만난다. 재계약을 앞두고 월세를 300% 올려달라던 건물주는 얼마 후에는 재계약은 원치 않으니 무조건 자리를 비우란다. 그리고 보니 몇 년 사이 한옥마을 풍경이 많이 달라 보인다.

Two years ago, father opened a gallery in the Jeonju Hanok Village with his partner where they started a photo printing on traditional Korean handmade paper business. Business was good. However, he meets an unexpected obstacle. The landlord wished to raise the monthly rent 300%. Then, he told that there would be no contract renewal. My father had to move out of the building. Now, I can see that much has changed in the Hanok Village landscape during the past few years.



5/9 17:00 INDIESPACE
5/11 14:30 INDIESPACE

돌고래와 나 Dolphin and Me

이정준 LEE Jeongjun | Korea | 2016 | 60' | Documentary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비밀을 찾아 제주도로 이주한 이정준 감독. 남방큰돌고래는 오랜 세월 제주 앞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해중림 파괴와 수온 상승, 해안 개발로 인한 바닷길 변화 등 제주의 급속한 환경 변화는 돌고래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일에 싸인 제주 섬 돌고래에 대한 최초 수중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작된다.

Filmmaker LEE Jeongjun moved to the Jeju Island in search of the fairly unknown secrets of the Jeju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What does it mean for dolphins to occupy the Jeju seas for many years? How has the rapidly shifting environmental change such as the destruction of sea jungles, the rising water temperature, and the altered sea route caused by seashore development influenced the dolphin's ecosystem? Now, begins the first underwater documentary film on the mysterious dolphins of the Jeju Island.



5/7 10:00 Cinecube
5/11 17:00 Sponge House

스톱 STOP

김기덕 KIM Ki-duk | Korea | 2015 | 85' | Fiction

후쿠시마 근교에 사는 부부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자 부부는 도쿄로 이사를 가고 아내가 임신했다. 낄 낄 알게 된다. 방사선 오염을 걱정하는 아내는 유산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이 아니라 아내를 설득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는 후쿠시마의 자기 집을 찾아간다. 방사선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으려 간 그곳에는…….

There is a couple who used live to near Fukushima. When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breaks out, the couple relocates to Tokyo where they learn the wife is pregnant with their child. The wife, fearful of giving birth to a deformed child due to radioactive contamination, attempts to get an abortion which the husband is against. The husband tries to dissuade his wife, claiming that Fukushima is not like Chernobyl. But when he fails, he goes back to his home in Fukushima to find proof that the contamination level is not so severe. What he finds there is……



5/7 17:00 INDIESPACE
5/12 19:30 INDIESPACE

해파리의 노래 Song of a Jellyfish

황철민 WHANG Cheol-mean | Korea | 2016 | 97' | Fiction

평범한 가정이며 대학교 수질연구소에서 일하는 이태호는 대학 동문인 신문기자 강철수의 방문이 반갑지 않다. 둘은 386세대로 대학 시절 뜨겁게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였다. 그러나 나 옛날 이야기다. 철수는 태호의 4대강 관련 논문을 기사화하길 원하지만 태호는 내부고발자가 되는 것을 주저한다. 내면의 양심과 현실의 굴레에서 갈등하는 태호, 그의 평온했던 삶은 점점 황폐해진다.

Dr. LEE Tae-ho, an ordinary breadwinner of the family who works at a university water quality lab is not too happy about a visit from his university friend and journalist, KANG Chul-soo. During the eighties, they were comrades who spent their university days as ardent student activists. But now that's all history. Chul-soo wants to run a report on Tae-ho's dissertation o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ut Tae-ho is hesitant about becoming a whistleblower. Tae-ho wavers between his conscience and the constraints of reality. His peaceful life is slowly destroyed.



5/9 14:30 INDIESPACE
5/12 12:00 Sponge House

핵마피아 The Nuclear Mafia

김한태 KIM Hwan-tae | Korea | 2016 | 115' | Documentary

'핵마피아'를 만나기 위한 시민탐정들의 용감한 여정이 시작된다.

A group of civil investigators courageously embark on a mission to meet with the 'nuclear mafia'.



5/7 19:30 INDIESPACE
5/11 19:30 INDIESPACE

13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제13회 서울환경영화제

5/8 19:30 Seoul Museum of History, 5/10 12:30 Cinecube

소풍 Picnic

문세은 MOON Se-eun | Korea | 2016 | 4' | Animation

노루 가족이 소풍을 떠난다.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노루 가족의 딸이 인간의 차에 치인다. 차에서 내린 인간은 죽은 노루 딸을 차갑게 바라보다 그냥 떠나버린다. 남겨진 노루 가족은 사라지는 차와 죽어있는 딸을 멍하니 바라본다.

A roe deer family goes on a picnic. They enjoy a great time together, but suddenly, the daughter deer is hit by a car. But the human who gets out of the vehicle to check on the damage just leaves with a frown on his face. The remaining three members of the deer family have no choice but to stare at the disappearing car and their daughter in disbelief.



동물도감 The Animal Book

조현아, 김수정 CHO Hyun-a, KIM Sujeong | Korea | 2015 | 5' | Animation

한적한 밤 외딴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고, 도로에서는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한다. 도로는 죽은 동물들의 거대한 동물도감이 되어 운전자의 딸의 손에 쥐어지고, 자동차는 또 다른 도감을 만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One silent night, a car speeds along a deserted road. The driver is dozing off at the wheel, creating a string of road kill as he does. This is happening regardless of species or habitat. The road is transformed into a large illustrated animal book which lands into the hands of the driver's daughter. The car disappears into the darkness to make another illustrated book.



그녀의 전설 Where Mermaids Go

김태용 KIM Tae-yong | Korea | 2015 | 28' | Fiction

어느 날 유진은 엄마가 없어졌다는 전화에 아들 민호와 함께 급히 제주로 내려온다. 해녀인 엄마가 물질 하던 흔적들이 구석구석 여전히 있는데, 밤새도록 소식이 없는 엄마. 이른 아침 유진은 마당에서 커다란 아생 꿈을 발견한다. 자신이 엄마라고 다가오는 꿈과 할머니라고 따르는 민호. 모든 게 어안이 병병한 유진. 세 사람의 꿈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One day, Yoo-jin urgently leaves for Jeju Island with her son Min-ho when she receives a call that her mother has disappeared. She finds quite a few traces of diving left by her mother who's a professional diver, but all through the night she doesn't hear from her. Early in the morning, Yoo-jin finds a gigantic wild bear in her mother's front yard. She's confused when the bear claims to be her mother as it approaches her, and even her son calls it, grandmother. The three spend a dreamlike day together.



시화공존 Coexistence with Shihwa Lake

민병훈 MIN Byung-hun | Korea | 2015 | 11' | Documentary, Experimental

'죽은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를 향해 젊은이들의 환한 페달질이 시작된다. 그들은 끝없는 방파제와 호수를 트래킹하며 각자의 카메라로 자연의 소리를 담는다. 문명과 보존의 경계선 위에 선 인간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한걸음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A group of young people vigorously start peddling toward Lake Shihwa, which successfully made its transition from 'dead lake' into a 'lake of life'. As they journey through the endlessly stretching seawall and lake, they try to document the sounds of nature on their cameras. Humans bordering between civilization and preservation seem so vulnerable as they dangerously sway about like they've lost direction, but what we end up seeing by taking a step back is in fact magnificent beauty.



적막의 경관 A Landscape Between Past and Future

오민욱 OH Min-wook | Korea | 2015 | 21' | Documentary, Experimental

1. 산 속 깊은 계곡에서 시작하는 물의 줄기. 그 표면의 찬상과 수면 아래 작은 생명체, 정지된 숲과 바위. 이 경관을 스치며 뚫고 들어간 황복 2차선 도로. 그 끝에 보이는 추모공원. 적막의 경관. 2. 과거에 파묻어 버린 현재. 관성적인 희망으로 채워질 미래. 멀어진 과거로부터의 현재. 다가올 미래로부터의 현재. 과거와 미래가 무수히 만나는 연속적인 현재. 적막의 현재.

1. A stream of water starts from the deep end of the mountain. The afterimage of its surface and the small life forms beneath the water. The static forest and rocks. As we pass this landscape, we enter a long-stretching two-lane road that leads to a memorial park surrounded in silence. 2. A present buried under the past. A future which will be filled with idle hope. A present from a distant past. A present from a future to come. A present in sequence where the past and future endlessly meet. A present surrounded by silence.



Sustainable Life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하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모색하는 작품들을 상영하는 섹션으로 건강한 먹거리, 웰빙-웰다잉, 슬로우 라이프, 대안적 건축 등 다양한 테마의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는 11편의 장편영화가 상영된다.

This section showcases films dealing with sustainable and alternative lifestyles where you can experience films with diverse themes including eating healthy, well-being and well-dying, slow life,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A total of 11 feature films will be screened this year.

땅을 사라 Change of Hands

오렐리안 리베크, 루바 빈크 Aurélien LÉVÊQUE, Luba VINK | France | 2015 | 66' | Documentary
(땅을 사라)는 '공공재로서의 땅'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사회 운동을 기록한다. '테르 데 리앙' 운동의 멤버들은 인간과 땅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시행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화는 프랑스의 사회구조가 당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를 통한 땅의 공영화는 가능할 것인가?

Change of Hands documents a social movement promoting the utopian idea: land as a common good. The members of the movement 'Terre de Liens' are putting in place the necessary means to change our relationship with land. Through this endeavor, the film shows how the very structure of our French society is challenged. Would collectivization of land through capitalism be possible?



5/7 19:30 Seoul Museum of History
5/9 17:00 Sponge House

핵의 봉인 Containment

피터 갈리슨, 롭 모스 Peter GALISON, Robb MOSS | USA | 2015 | 82' | Documentary
과연 우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물질의 생산을 막을 수 있을까? 1억 갤런의 방사능 폐기물로 뒤덮인 방사능 시대는 냉전의 산물이다.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각국의 정부들은 시간을 초월해 증언할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들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Can we contain some of the deadliest, most long-lasting substances ever produced? Left over from the Cold War are a hundred million gallons of radioactive sludge, covering vast radioactive land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desperat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have begun imagining society 10,000 years from now in order to create monuments that will speak across time.



5/7 17:00 Seoul Museum of History
5/9 14:30 Seoul Museum of History

데어 투 비 와일드 Dare To Be Wild

비비앤느 드 커시 Vivienne De COURCY | Ireland | 2014 | 98' | Fiction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가든 디자이너 메리 레이놀즈의 자서전 「데어 투 비 와일드」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메리 레이놀즈가 식물학자 크리스티 콜라드의 도움을 받아 2002년 '첼시플라워 쇼' 쇼 가든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을 그린 아름다운 드라마이다. 2015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 수상한 영화 《버드맨》의 프로듀서 사라 존슨이 제작했다.

From the green hills of Ireland to the desert highlands of Africa, to London's Chelsea, *DARE TO BE WILD*, is a romantic adventure based on the against-all-odds true story of Mary REYNOLDS, a modern-day heroine, whose quest is to show the world the power of wild nature as she reaches for her dreams - one garden, one vast desert, at a time.



5/7 19:30 Cinecube
5/10 14:30 Cinecube

호수의 딸 Daughter of the Lake

에르네스토 카베요스 Ernesto CABELLOS | Peru | 2015 | 87' | Documentary

페루 골드 러시의 정점. 물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안데스 여인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자신이 엄마라고 믿는 호수를 광업회사들이 파괴하지 못하게 한다.

At the height of the Peruvian gold rush, an Andean woman able to communicate with water spirits uses her powers to prevent a mining corporation from destroying the lake she considers to be her mother.



5/10 19:30 Sponge House
5/12 19:30 Seoul Museum of History

깊은 곳에서 From the Depths

발렌티나 페디치니 Valentina PEDICINI | Italy | 2014 | 72' | Documentary

골도, 계절도, 시간도 없는 긴 밤. 금지된 동지에 저주이기도 한 세속적 노동. 수 킬로미터의 터널. 어둠, 흑인 남자. 여자. 이탈리아의 유일한 여성 광부인 파트리치아는 죽은 아버지와 함께 절대 잊을 수 없는 대화를 한다. 마지막 남은 150명의 광부들은 이미 임박한 광산의 폐쇄를 막기 위해 '지상'의 세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

A long night without an end, without seasons, without time. A secular labor that is both pride and curse. Kilometers of tunnels. Darkness. Black men. A woman. Patrizia, the only female miner in Italy, enters in a dialogue with a dead father, a never buried memory. The last 150 miners are ready to fight a war against the 'upper' world to prevent the already imminent closure of the mine.



5/8 19:30 Sponge House
5/10 10:00 Sponge House

환상의 섬 Isia Bonita

페르난도 콜로모 Fernando COLOMO | Spain | 2015 | 101' | Fiction

페르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베테랑 홍보업자이다. 메노르카 섬으로 도피를 한 그는 이곳에서 다양한 지인과 새로 사귀 친구들에게 둘러싸인다. 그들 덕분에 페르는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총만함을 즐길 수 있게 된다.

Fer is a veteran publicist who is going through a life crisis. Because of this, he takes refuge in the island of Menorca, where he will be surrounded by various acquaintances and new friends he meets. Thanks to them, a new perspective on life is opened to Fer, who will fully enjoy life in a natural environment which will awaken all his senses.



5/9 19:30 INDIESPACE
5/12 19:30 Cinecube

점보 와일드 Jumbo Wild

닉 웨고너 Nick WAGGONER | USA, Canada | 2015 | 60' | Documentary

파타고니아가 제작한 스위트그래스 프로덕션의 다큐멘터리.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상징인 점보 밸리의 오지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 야생 보호와 오지 체험, 그리고 야생 구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멈출 줄 모르는 관심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다.

Patagonia presents a documentary by Sweetgrass Productions depicting all sides of an epic struggle between backcountry protection and development in British Columbia's iconic Jumbo Valley—highlighting the tension between protection of wilderness and the backcountry experience and ever-increasing development interests in wild places.



5/9 10:00 Cinecube
5/12 14:30 Cinecube

얼룩진 하늘 - 보이지 않는 위험

OVERCAST - An Investigation into Climate Engineering

마티아스 한케 Matthias HANCKE | Switzerland | 2016 | 78' | Documentary

〈얼룩진 하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다루는 혁신적인 다큐멘터리이다. 하늘을 덮고 해를 가리는, 구름으로 퍼지는 비행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 흔적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경 범죄이다.

OVERCAST is a groundbreaking documentary about a phenomenon that most of us would consider normal: Jet contrails that spread into clouds, covering the sky and blocking the sun. For some people however, these trails are the biggest environmental crime in the history of mankind.



5/8 10:00 Sponge House
5/11 10:00 INDIESPACE

살레로 Salero

마이크 플런켓 Mike PLUNKETT | USA, Bolivia | 2015 | 76' | Documentary

세상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인 볼리비아의 살레로 데 우유니는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을 자랑하는 흰 땅이다. 이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은 하얗게 빛나는 땅 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살레로들 뿐이다. 볼리비아 정부가 이곳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 고립된 지역은 원치 않는 미래로 떠밀려간다. 〈살레로〉는 마지막 남은 소금 채취업자인 모이시스의 눈을 통해 전통과 발전의 상호작용을 시각으로 관찰한다.

The earth's largest salt flat, Bolivia's Salar de Uyuni, is an otherworldly expanse of white. For generations, the only signs of life have been the saleros who harvest salt from its radiant surface. This secluded region is thrust into the future when Bolivia embarks on a plan to build an infrastructure that will connect it to the modernized world. *Salero* is a poetic journey through the eyes of Moises, one of the last remaining salt gatherers, whose story explores how identity is formed by both tradition and progress.



5/9 19:30 Sponge House
5/11 10:00 Sponge House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This Changes Everything

에비 루이스 Avi LEWIS | Canada, USA | 2015 | 89' | Documentary

이 영화는 기후변화 최전선에 있는 7개의 커뮤니티에 대한 강렬한 초상화이다.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탄소배출과 경제시스템의 관계를 보여주는 나오미 클라인의 내레이션을이다. 이 영화에서 클라인은 그녀의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실패한 경제시스템을 훨씬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바꿈으로써, 기후변화라는 존재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Changes Everything, the film presents seven powerful portraits of communities on the front lines. Interviewed with these stories of struggle is KLEIN's narration, connecting the carbon in the air with the economic system. Throughout the film, KLEIN builds to her most controversial and exciting idea: that we can seize the existential crisis of climate change to transform our failed economic system into something radically better.



5/10 14:30 INDIESPACE
5/12 17:30 Seoul Museum of History

나의 언덕이 푸르러질 때 Where the Hills Are Greener

올리버 디킨슨 Oliver DICKINSON | France | 2015 | 78' | Documentary

2012년, 80명이 살고 있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캐플롱기에 로코모티브(Loco-Motivés)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비전은 최대한 자연과 동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로컬푸드를 생산, 배달하는 것이다. 개인적이고도 시적인 일련의 자화상을 통해 우리는 이자벨, 장-마르크, 빈센트 등의 인물들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했던 지난 일 년간의 시간을 따라간다.

Caplongue is a small village of 80 inhabitants in the South of France where the Loco-Motivés association was created in 2012. Its vision is to produce and deliver local food, respectful of nature and animals, in the friendliest way possible. Through a series of personal and poetic portraits, we follow Isabelle, Jean-Marc, Vincent and the others over the course of a year as they pursue their ideal.



5/7 12:00 Seoul Museum of History
5/9 19:30 Seoul Museum of History

Coexistence Zone

공존의 삶

인간 중심의 자연관. 우주 관념을 극복하고 인간이 동물,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기존의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을 확대하여,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자연과 많은 생명체들과 공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는 영화들을 함께 상영한다.

This section introduces films that step away from anthropocentrism and promotes a lifestyle where humans, animals and nature can live in harmony. Films that expand the idea of *Animal, Our Sweet & Wild Companion* to show that the planet is not the sole property of humans, but a place where nature and all different kinds of organism must co-exist with will be presented as well as works that call for the care and recogni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텅 빈 하늘 Emptying the Skies

더글라스 카스 Douglas KASS | USA | 2013 | 78' | Documentary

베스트셀러 소설작가 조너선 프랜젠이 '뉴욕커'에 쓴 매거진 에세이에 토대를 둔 〈텅 빈 하늘〉은 지중해로 이주한 송버드들의 경이로움을 탐구한다. 그들 중 매년 수백만 마리가 거액의 양시장의 불법 사냥에 희생되는 가운데 용감한 범용수 새 애호가들은 목숨을 걸고 밀렵꾼과 비밀스러운 전쟁을 벌인다.

Based on a magazine essay written in *The New Yorker* by best-selling novelist Jonathan FRANZEN and republished around the world, *Emptying the Skies* explores the wonder of migratory songbirds in the Mediterranean, millions of which are unlawfully slaughtered each year for large sums on the black market, and follows an intrepid squad of pan-European bird-lovers who risk their lives waging a secret war against poachers.



5/8 17:00 Sponge House
5/10 17:00 Seoul Museum of History

홀리건 스파로우 Hooligan Sparrow

왕 난푸 WANG Nanfu | China, USA | 2016 | 84' | Documentary

일군의 운동가들이 중국 남부를 횡단하며 정부 관계자와 교장이 여섯 명의 여학생을 강간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인다. 일명 '참새'라고 불리는 예 하이옌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 '참새'는 국가의 공격이 되지만 구름, 심문과 퇴거도 그녀의 항의 시위를 멈추지 못한다. 이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Traversing southern China, a group of activists led by Ye HAIYAN (AKA Sparrow) protest a scandalous incident where a school principal and a government official allegedly raped six school girls. Sparrow becomes an enemy of the state, but detentions, interrogations, and evictions can't stop her protest from going viral.



5/7 17:00 Sponge House
5/10 14:30 Sponge House

아이 엠 더블린 | Am Dublin

다비드 아로노비치, 아메드 압둘라히, 샤막 비뉴수프, 안나 페르손 David ARONOWITSCHE, Ahmed ABDULLAHI, Sharmarke BINYUSUF, Anna PERSSON | Sweden | 2015 | 75' | Documentary
이 영화는 더블린 조약의 당사자인 아메드에 대한 이야기이다. 극영화에서 자신의 실제 현실과 똑 같은 상황에 처한 인물을 연기하기도 한 그는, 6년 동안 유럽에 있었고 그 중 3년 동안은 스웨덴에 숨어 있었다. 더블린 조약은 그가 보트를 타고 처음 도착한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럽 등지를 떠돌게 되었다.

The film portrays Ahmed who is a Dublin-case. He gets a role in a fiction film playing a character in the same situation. Ahmed has been in Europe for six years, three years in hiding in Sweden. When he arrived by boat to the Italian island Lampedusa, he was forced to leave his fingerprints. The Dublin Regulation decides that he can only apply for asylum in Italy as his arrival country. The Dublin Regulation has created a large group of young people drifting around Europe.



5/7 10:00 Sponge House
5/10 17:00 Sponge House

킬링 타임 Killing Time

뤼디 위쇼-클로델 Lydie WISSHAUPT-CLAUDEL | France, Belgium | 2015 | 88' | Documentary
룩키 캘리포니아 사막의 깊은 곳에는 29 팜스라 불리는 작은 군부대 마을이 있다. 대규모 해병부 대 인근에 있는 이 마을은 매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는 부대원들을 환영한다. 휴가 중이거나 이미 부대로 복귀한 젊은 군인들은 홀로 시간을 때운다. 일상의 따분함은 이제 영원히 낯선 것이 되어버릴 인생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Deep in the rocky Californian desert lies a small military town named 'Twentynine Palms'. Neighboring a large Marine Corps base, it welcomes troops coming back from Iraq and Afghanistan all year around. On leave or already back to training, these young men kill time by themselves. The banality of everyday life shows how difficult it will be for these men to reclaim a life that will seem forever foreign.



5/8 14:30 Sponge House
5/12 17:00 Sponge House

언브랜디드 Unbranded

필립 바리보 Phillip BARIBEAU | USA | 2015 | 105' | Documentary
네 명의 친구들이 인생을 바꾸는 숭고한 모험을 시작한다. 그들은 야생마를 타고 장엄한 그랜드캐니언, 옐로우스톤, 글래이셔 국립공원을 포함해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캐나다의 국경까지 미국 서부의 자연을 탐험한다.

Four friends embark on a sublime, life-changing adventure. They are to travel on wild mustangs across the American West, from the Mexican to Canadian border through the majestic Grand Canyon, Yellowstone and Glacier National Park.



5/7 14:30 Sponge House
5/10 17:00 INDIESPACE

철장을 열고 Unlocking the Cage

크리스 헤지더스, D. A. 페니베커 Chris HEGEDUS, D. A. PENNEBAKER
USA | 2015 | 91' | Documentary

<철장을 열고>는 동물 권리 변호사인 스티븐 와이즈의 전례 없는 도전을 다룬다. 그는 동물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합법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침팬지를 아무 권리가 없는 '것'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을 준비한다.

Unlocking the Cage follows animal rights lawyer Steven WISE in his unprecedented challenge to break down the legal wall that separates animals from humans, by filing the first lawsuits that seek to transform a chimpanzee from a 'thing' with no rights to a 'person' with legal protections.



5/8 10:00 INDIESPACE
5/10 19:30 INDIESPACE

고기가 불리는 동물들 Animals Labelled as Meat

정교민 JUNG Kyo-min | Korea | 2015 | 10' | Documentary

고기는 현대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먹거리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 고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영국의 육류제품과 연관된 동물권리와 윤리적 목적업에 대해 말하는 이 영화는 공장식 축산 대신 방목사육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유기농', '방목' 등 각종 상표시스템(라벨)이 지닌 문제를 고발한다.

Nowadays, meat has become one of the most common foods in our daily lives even though we are not really interested in how it is made. Here are clear reasons why we should choose and buy free range meat as opposed to factory farmed meat. In addition, we need to think about what the real free range is about and the labelling system at the same time before we simply pick up the product labelled 'Free Range'.



인사이드 퍼 Inside Fur

올라 외근 Ola WAAGEN | Norway | 2014 | 57' | Documentary

일군의 환경운동가들이 북유럽 모피 산업의 진상을 알리겠다는 목표 하에 농장에 잠입한다. 수백 개의 모피농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공개되었을 때, 미디어에서는 잔치가 벌어졌고 대중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변한 것은 없다. 프랭크 나르비크는 모피 산업계에 그가 모피 농부가 되겠노라 말한다. 업계에 받아들여진 그는 그들의 영업 비밀을 배우기 시작한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몰래카메라로 자신의 트레이닝을 촬영한다.

A group of highly motivated activists work for years with the goal of exposing the true face of the Nordic fur industry. They sneak into hundreds of fur farms. When their images are publicized it causes media feasts and public outrage, year after year. However, nothing changes. Frank NERVIK tells the fur industry that he plans to become a fur farmer. NERVIK is accepted as one of them, and starts learning the trade secrets.



5/9 12:30 Seoul Museum of History, 5/12 12:00 Seoul Museum of History

갈매기의 도시 Seagull City

사샤 플루스테르 Sascha FÜLSCHER | Sweden | 2015 | 14' | Documentary

갈매기들은 도시의 아침을 깨우는 헌신적인 거주자들이다. 도시에서 갈매기들은 새끼들을 위해 안식처를 찾고, 인간이 내다 버린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찾는다. 우리는 갈매기의 눈을 통해 도시의 삶을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환경에서 인간과 새의 공존 방법을 찾게 된다.

Seagulls are dedicated city dwellers which wake the city up in the morning. In the city Seagulls find shelter for their young ones, and human rubbish with lots of leftovers to eat. In Seagull City we experience urban life through the eyes of the seagulls, and investigate the co-existence between people and birds in an environment that we usually consider as 'ours'.



와일드리스 Wildless

케빈 맥크레이, 조니 해리스 Kevin McCRAE, Jonny HARRIS | UK | 2015 | 4' | Animation

자연의 생물들은 엄청나게 사냥당했고, 거주지들은 오염되거나 파괴되었다. 우리는 야생동물들을 잃고 있다. (와일드리스)는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았던 거대 동물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시간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도 환경을 반영할까?

Creatures in nature have been hunted in unsustainable numbers and habitats polluted or destroyed. We're losing the world's wildlife. Wildless cascades us in time, giving glimpse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hen mega-fauna roam the Highlands of Scotland. Our environment is a reflection of us, but are we also a reflection of our environment?



13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제13회 서울환경영화제

5/9 12:30 Seoul Museum of History, 5/12 12:00 Seoul Museum of History

그들만의 만찬 Dinner for Few

나소스 바칼리스 Nassos VAKALIS | Greece | 2014 | 11' | Animation

〈그들만의 만찬〉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화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저녁식사 동안 '시스템'은 바보같이 모든 자원을 소비하는 몇몇만을 배불리 먹이고 나머지는 남은 부스러기들로 생존한다. 남은 것들을 위한 싸움은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변화를 낳는다.

Dinner for Few is an allegorical depiction of our society. During dinner, 'the system' feeds the few who foolishly consume all the resources while the rest survive on scraps. Inevitably the struggle for what remains leads to catastrophic change.

**카틱 KATIK**

야야 예르잔 Yahya ERCAN | Turkey | 2015 | 18' | Documentary

이 단편 다큐멘터리는 터키 중앙정부가 재활용 분야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리로 나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일을 훔고 내쫓아 버리는지 고발한다.

This documentary short film is about how the government focals want to confiscate the jobs and to take down the people who work in the streets because of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recycling sector.

**우리 집에 호랑이가 산다 A Tiger in My Backyard**

엘리자베스 왓슨 Elizabeth WATSON | Sweden | 2015 | 28' | Documentary

당신의 뒷마당에 호랑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당신이 호랑이인데, 동쪽으로 가는 방법이 마을을 통하는 것밖에 없다고 상상해 보라. 순덕칼은 호랑이와 사람이 만나는 불행한 장소이다. 이 영화는 인도 사람들과 호랑이들 사이의 갈등을 탐구하여 놀랍도록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Imagine tigers roaming around your backyard. And imagine being a tiger, where the only way East is through a village. Sunderkhal is the unhappy place where tigers and humans meet. This film explores the conflict between humans and tigers in India and shows some surprisingly simple solutions.

**달콤한 미스터리 Sweet Mysterious**

시모네 휴이만스 Simone HOOMANS | Norway | 2015 | 8' | Animation, Experimental

〈달콤한 미스터리〉는 노르웨이의 가수 마리 크비엔 브룬볼의 동명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다. 이 영화는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한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신화화하고 파괴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지, 마음과 몸 모두가 서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Sweet Mysterious is an animation inspired on the song *Sweet Mysterious* of Mari Kvien Brunvoll (Norwegian singer and composer). The Animation discusses various ways man's relationship to nature—how we both mythologizing it, wreak havoc, while living under a constant threat from it. Not realizing we are part of it, both in body and soul.



The Other Side of Civilization

문명의 저편

산업화로 인해 파괴된 전통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고, 모던화, 산업화된 현대사회를 성찰하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여기 소개되는 7편의 장 단편 영화들에는, 전통과 문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극지방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거나 미래 세계상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풀어가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A collection of films that contemplate the value and meaning of a traditional lifestyle destroyed by industrialization, and reflect upon a modernized and industrialized contemporary society will be showcased. The 7 short and feature films screened in this section include works that present the lives of the people of Polar Regions caught between tradition and civilization, or portray a futuristic world through unique imagination.

5/8 12:00 Sponge House, 5/12 10:00 Seoul Museum of History

트리 인 더 씨 A Tree in the Sea

샤히르 재그 Shahir ZAG | UAE | 2015 | 19' | Fiction

푸자이라의 마지막 남은 전통 어부가 65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한다.

The last traditional fisherman of Fujairah fishes illegally in a marine reserve to keep a promise he made 65 years earlier.

**나미브 사막의 사자들 Vanishing Kings - Lions of the Namib**

리안 스티캠프, 윌 스티캠프 Lianne STEENKAMP, Will STEENKAMP

Austria | 2015 | 52' | Documentary

암사자와 그의 새끼들은 나미브 사막의 사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2년 전, 암사자들은 다섯 마리의 수사자를 낳았고, 사막의 어려움과 수컷의 부재 속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며 새끼들을 독립적으로 키웠다. 하지만 용감하게 기린을 공격하던 나이 많은 암사자는 부상을 당해 점점 죽어간다.

A lioness and her daughters hold the key to the survival of Namibia's rare desert lions: two years ago they gave birth to five male cubs, and through the hardships of the desert and without a pride male, they are raising them to independence, showing them how to hunt the prey. But in a desperate, brave and spectacular attack on a giraffe, the elderly matriarch is injured and subsequently dies of her wounds.

**하얀 이끼 White Moss**

블라디미르 투마예프 Vladimir TUMAEV | Russia | 2014 | 100' | Fiction

이 영화는 툰드라를 배경으로 여덟 적부터 한 소녀와 사랑에 빠진 네넷족 청년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소녀는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지방의 센터로 떠나고 주인공은 사랑과 전통, 툰드라의 삶의 법칙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 영화는 충성심, 비통함, 질투를 포함하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영화이다. 그리고 번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찾는 행위에 대한 영화이다.

The film describes a story of a young Nenets guy who's fallen in love with a girl since his childhood. But she left for the regional center wishing to have more comfortable life. The main hero is suffering in the struggle between his love and responsibilities to follow the traditions and laws of life in the Tundra. This film is about LOVE which implies loyalty, anguish, jealousy. And finding love in the name of procreation.

5/7 12:00 Sponge House
5/10 10:00 Cinecube

5/9 10:00 Seoul Museum of History, 5/11 10:00 Cinecube

팻볼루션 Fatvolution

응 웨이 생 아담, 탄 첸 하오 켄 NG Wei Sheng Adam, TAN Chen Hao Ken
Singapore | 2015 | 10' | Animation

갈루스는 먹고 살찌는 것이 일인 공장에서 일한다. 그는 충분히 뚱뚱해져서 팻볼루션에 가입해 여우들과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선택 받은 자가 될 기회를 놓친 그는 흥족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Gallus works in a factory where his job is to eat and get fat. He can't wait for his turn to become fat enough to join the Fatvolution and fight the foxes. When he stumbles upon his chance to ascend as a chosen one, he realizes the ugly truth and cannot do anything even if he wants to.



더 필드 The Field

오메르 사손 Omer SASSON | Israel | 2015 | 11' | Fiction

미래의 지금, 한 외로운 농부가 아버지의 농장을 이어받아 일한다. 그는 자동으로 땅을 경작하는 거대한 일체형 로봇을 설치한다. 땅을 과도하게 경작하면서 그는 땅이 왜 신음하며 죽어 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순간, 과거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독특하고 단순했던 아버지의 농사법을 떠올린다.

In the future present, a lonely farmer takes on working the fields once belong to his father. He installs huge robotic all-in-one machines that automatically treat the land. The farmer overworks the fields with his machines and fails to understand the reason for the suffering of his dying land. In a moment, he finds himself in front of a doorway to the past, which makes him realize his errors and reminds him of the old and simpler farming ways of his father.



그래피티 Graffiti

루이스 퀴레즈 Luis QUILEZ | Spain | 2015 | 30' | Fiction

세기말적인 세계. 망가진 도시. 단 한 명의 생존자. 에드가는 생명을 파괴한 '사고'로 오염된 지역을 피해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에드가의 일상엔 침대 옆 그래피티로 가득 찬 벽을 발견하면서 깨지고 만다. 단 하나의 단어가 또 다른 생존자의 존재를 드러낸다. 'Anna'

An apocalyptic world. A devastated city. One last survivor. Edgar has learned to survive on his own avoiding contaminated areas by the 'incident' which destroyed life. But Edgar's routine is suddenly disrupted by the discovery of a wall with graffiti is by his bed. Just one word reveals the presence of another survivor: 'Anna'



마지막 이누이트: 나누크의 후에 The Last Kings of the Arctic

크리스토프 쿠잔 Christophe COUSIN | France | 2014 | 48' | Documentary

북극은 지구에서 가장 살기 불편한 곳이다. 이 척박하고 얼어붙은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는 법을 배운 몇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북극의 왕'이라고 부른다. 지구의 가장 위쪽에서 그들은 나머지 인류가 그들의 영역을 서서히 잠식하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바라본다. 몇몇은 자신들의 발아래 금과 휘발유가 있기를 꿈꾸고 몇몇은 그들 종족의 생존을 바라며 사냥에 나선다.

Sitting on top of the earth is one of the most inhospitable environments on the planet. There are a few men who have learned to survive in this intense and frozen world. We call these men the 'King of the Arctic'. From up high, they watch as the rest of humanity causes the global warming which is slowly attacking their own territory. Some of them dream of finding gold or petrol beneath their feet whilst others prepare to go hunting hoping to ensure the survival of their clan.



Focus - The Present of Globalization

포커스 - 세계화의 오늘

올해 포커스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는 세계화의 오늘이다. 오늘날 세계 환경 담론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들은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이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선도해온 이 국가들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에 대한 성찰은 회피되고 있다. 세계화의 오늘에서는 현재의 환경 논의들이 피해 가는 지점,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는 질서가 야기한 환경 문제의 역사적 연원, 맥락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한 탐구를 위해 두 명의 감독을 호출한다. 미카엘 글라보거와 파트리시오 구스만이 그들이다.

This year's Focus, focuses on two particular themes. The first is *The Present of Globalization*. Europe and North America are the main force of contemporary global environmental discourses. These countries that define and lead the agendas of environmental issues are in fact, also fundamentally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issues the world is facing at the momen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not any one of these countries are owning up to it.

The Present of Globalization offers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origins and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crisis caused by globalization and the order of Neo Liberalism often avoided in recent environmental discussions.

Two filmmakers, Michael GLAWOGGER and Patricio GUZMÁN have been summoned to explore this issue.

빛을 향한 노스탤지어 Nostalgia for the Light

파트리시오 구스만 Patricio GUZMÁN | Chile, France, Spain, Germany | 2010 | 90' | Documentary

칠레의 3,000 미터 고도. 아타카마 사막에 전 세계에서 온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하기 위해 모인다. 하지만 그곳에는 독재정권 아래 정치범들의 유해도 있다. 천문학자들이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를 생명체를 찾아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를 관찰하는 동안 관측소 기슭에서 여자들은 사막의 흙을 파내며 사라진 친척들을 찾는다.

In Chile, at three thousand meters altitude, astronomers from all over the world gather together in the Atacama Desert to observe the stars. But there are also the remains of the dictatorship's political prisoners. Whilst the astronomers examine the most distant galaxies in search of probable extraterrestrial life, at the foot of the observatories, women are digging through the desert soil in search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5/7 14:30 Cinecube
5/12 12:00 Cinecube

자개단추 The Pearl Button

파트리시오 구스만 Patricio GUZMÁN | Chile, France, Spain | 2015 | 82' | Documentary

칠레의 가장 긴 국경인 물은 해저에서 발견된 미스테리한 버튼의 비밀을 안고 있다. 2,670 마일의 칠레 해안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카도하이머 초자연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그 안에는 파타고니아의 원주민들, 처음 온 영국인 뱃사람들, 그리고 정치범들의 목소리들도 있다. 이 영화는 물에도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Water, the longest border in Chile, holds the secret of a mysterious button that was discovered in its seabed. Chile, with its 2,670 miles of coastline, the largest archipelago in the world, presents a supernatural landscape. In it are the voices of the Patagonian indigenous people, of the first English sailors and also those of its political prisoners. This film shows that it also has a voice.



5/8 17:00 Cinecube

대도시 Megacities

미카엘 글라보거 Michael GLAWOGGER | Austria | 1998 | 90' | Documentary

아름다운 지구를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다. 뭄바이, 멕시코시티, 모스크바, 뉴욕: 유혹적이지만 역겨운 괴물들. 모순은 대도시 사람들의 일상에서 스며든다. 영화는 날마다 품위있게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의 삶을 보여준다. 그들 모두는 하나의 판타지를 공유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꿈. (대도시)는 노동, 가난, 폭력, 사랑과 섹스에 대한 영화이자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영화이다.

Earth is beautiful. It's people who make it horrific. Mumbai, Mexico City, Moscow, New York: seductive yet repellent monsters. The contradiction insinuates itself into the daily lives of those who populate these megacities. The film shows day in, day out people all set about their struggle for survival with dignity. They all share a single fantasy: the dream of a better life.



5/7 12:00 Cinecubec
5/11 14:30 Cinecubec

노동자의 죽음 Workingman's Death

미카엘 글라보거 Michael GLAWOGGER | Austria | 2005 | 120' | Documentary

오늘날 육체노동자는 더 이상 칭송받지 못한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불법 탄광 통로를 기어 다닌다. 인도네시아의 유황 수집가들은 활화산의 열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쓴다. 피, 불, 악취는 나이지리아 야외 도축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일상이다. 파키스탄의 남자들은 맨손으로 버려진 오일 탱크에서 고철을 분리한다. 육체 노동자들의 자화상은 21세기에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것들이다.

Today's manual laborers are no longer celebrated with hymns of praise. In the Ukraine, a group of men spend long days crawling through cramped shafts of illegal coal mines. Sulfur gatherers in Indonesia brave the smoky heat of an active volcano and the treacherous trip back down. Blood, fire and stench are routine for workers at a crowded open-air slaughterhouse in Nigeria. Pakistani men use little more than their bare hands to dismantle an abandoned oil tanker for scrap metal. The portraits of heavy manual labor, increasingly less visible in our technological 21st Century.



5/9 14:30 Cinecubec
5/12 19:00 Sponge House

매춘의 그림자 Whores' Glory

미카엘 글라보거 Michael GLAWOGGER | Austria, Germany | 2011 | 119' | Documentary

〈매춘의 그림자〉는 매춘에 대한 영화적 삼면화이다. 세 개의 국가, 세 개의 언어, 세 개의 종교, 태국에서 여자들은 판유리 뒤에서 반사된 자신들을 쳐다보며 고객을 기다린다. 방글라데시에서 남자들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랑의 게토로 간다. 멕시코에서 여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피하게 해달라고 죽음의 여신에게 기도한다. 가장 내밀한 행위가 상품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 여자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다.

Whores' Glory is a cinematic triptych on prostitution: three countries, three languages, three religions. In Thailand, women wait for clients behind glass panes, staring at reflections of themselves. In Bangladesh, men go to a ghetto of love to satisfy their unfulfilled desires. Also, in Mexico, women pray to a female death to avoid facing their own reality. In worlds where the most intimate act has become a commodity, these women have experienced everything that can happen between a man and a woman.



5/9 12:00 Cinecubec
5/11 16:30 Cinecubec

Focus - Controversy 2016

포커스 - 쟁점 2016

쟁점 2016에서는 특별히 논쟁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영화들과 우리의 시선을 통한 비판적 재해석이 필요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소개한다.

Focus - Controversy 2016 introduces a selection of films dealing with controversial issues in particular, and subjects that require the audience's critical reconsideration.

뱅킹 네이처 Banking Nature

상드린 페예, 드니 델레스트락 Sandrine FEYDEL, Denis DELESTRAC

France | 2014 | 90' | Documentary

우리는 자연 세계의 상품화를 조사한다. 우리의 행성을 보호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시장에 착수하려는 회사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들의 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땅을 사들여 '자연'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는 중 뱅킹을 포함한다. 많은 존경 받는 경제학자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한 우리의 생태계 유산은 팔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까?

We investig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natural world. Protecting our planet has big business with companies prompting new environmental markets. This involves species banking, where investors buy up vast swathes of land, full of endangered species, to enable them to sell 'nature credit'. Many respected economists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protect nature is to put a price on it. Should our ecological heritage be f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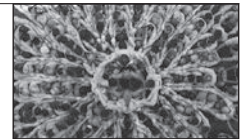
5/9 10:00 INDIESPACE
5/11 12:00 INDIESPACE

휴먼 Human

안 아르튀스-베르트랑 Yann ARTHUS-BERTRAND | France | 2015 | 188' | Documentary

〈휴먼〉은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작품으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사색하게 한다. 사랑과 행복, 증오와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이야기들을 통해, 〈휴먼〉은 타인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이 가슴 아픈 만남은 보기 드문 진정성으로 인간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고귀한 면까지 보게 한다. 〈휴먼〉은 인간의 조건과 존재 의미를 탐구하는 정치적인 작품이다.

Human is a collection of stories about and images of our world, offering an immersion to the core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Through these stories full of love and happiness, as well as hatred and violence, Human brings us face to face with the Other, making us reflect on our lives. These poignant encounters share a rare sincerity and underline who we are — our darker side, but also what is most noble in us, and what is universal. Human is a politically engaged work which allows us to embrace the human condition and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our existence.



5/9 19:00 Cinecubec
5/11 19:00 Cinecubec

레이싱 익스팅션 Racing Extinction

루이 시호요스 Louie PSIHYOVS | USA | 2015 | 94' | Documentary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로 아카데미 수상을 한 루이 시호요스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숨겨진 세상을 드러내고, 그들을 집단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술가들과 운동가들을 모아 비밀 작전을 수행한다.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암시장에 잠입해 탄소배출량과 종 멸종의 관계를 첨단 기술의 전략으로 기록하는 <레이싱 익스팅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이미지들을 선사하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Oscar winning director Louie PSIHYOVS (*The Cove*) assembles a team of artists and activists on an undercover operation to expose the hidden world of endangered species and the race to protect them against mass extinction. Spanning the globe to infiltrate the world's most dangerous black markets and using high tech tactics to document the link between carbon emissions and species extinction, *Racing Extinction* reveals stunning, never-before seen images that truly change the way we see the world.



5/8 10:00 Cinecube
5/10 17:00 Cinecube

에스맨 프로젝트 2 The Yes Men Are Revolting

로라 닉스, 에스맨 Laura NIX, The Yes Men | USA | 2015 | 91' | Documentary

20여 년간 에스맨은 기업 범죄를 폭로하는 미디어 풍자를 멋지게 성공시켜 왔다. 이제 중년이 된 이 기막힌 운동가들은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만년설이 녹기 전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For two decades, The Yes Men have pulled off spectacular media hoaxes to expose corporate crimes. Now, these hilarious activists are approaching middle age, struggling to stay inspired in their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Can they get it together before the ice caps melt?



5/9 12:00 INDIESPACE
5/11 19:00 Seoul Museum of History

Sky Park View Sky Park View

김진섭 KIM Jinsub | Korea | 2015 | 8' | Experimental

한국의 스카이라인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한다. 전국이 새로운 아파트와 빌딩을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옥상공원은 유일하게 명상하고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아 이리니하게도 이 명상의 기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빌딩을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The skyline is changing everyday and everywhere in Korea, because the whole country is under construction with apartments and new buildings. In the meantime, a rooftop park seems to be the only place you can meditate and find comfort. Ironically, the meditative opportunity only makes us be aware of our repetitive behavior of constructing bui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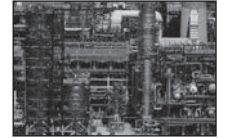


A.D.A.M. A.D.A.M.

블라디슬라브 케네제비치 Vladislav KNEZEVIC | Croatia | 2014 | 13' | Experimental

A.D.A.M. (Autonomous Drone for Asteroid Mining)이라는 장치의 몰락은 인식과정의 강화와 자율모드의 활성화를 불러왔고, 이는 인공위성 회사 오퍼레이터들과의 소통 단절을 일으켰다. 텅 빈 풍경들, 도시의 거대 고층건물과 불협화음의 언어들이 삼켜버린 지평선, 코드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 메타픽션의 기초이다.

The fall of a device named A.D.A.M. (Autonomous Drone for Asteroid Mining) causes the strengthening of its cognitive processes and activation of the autonomous mode. This leads to its refusal of communication with the satellite company operators. An atlas of intensive empty landscapes, urban megastructures and lost horizons immersed in a cacophony of languages, codes and communication networks forms the basis of this metafic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chine.



워터소들리에 Capital

줄리아 브루노, 리다 페린 Giulia BRUNO, Lida PERIN | Germany, Italy | 2014 | 28' | Documentary

21세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원 뒤에는 어떤 모순이 숨어 있을까? 물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집에서, 삶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행위처럼 보인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What unexpected contradictions might be hidden behind a resource often taken for granted in the 21st century? Drinking water seems to be a constant presence in our homes, in our lives and in our everyday activities. But this hasn't always been the case, and in many places it still isn't.



플라로칸, 물의 천국 Tlalocan. Water Paradise

안드레스 풀리도 에스테바 Andrés Pulido ESTEVA | Mexico | 2016 | 30' | Documentary

멕시코시티는 호수 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 영화는 다양한 장소들을 가로지르며 이러한 모순에 대해 성찰한다. 이 작품은 스페인 정복 이전의 물의 신을 상징한 거대한 돌기둥 플라로크가 도시의 중심에 세워졌던 때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이기도 하다. 그와 동시에 끝파기의 가장 큰 호수는 바닥나고 있었다.

Mexico City was built on a lake, but today it faces serious water scarcity. This film leads us across diverse places that allow us to reflect on this contradiction. It's also a journey through time, to the moment when a huge monolith representing Tlaloc - a pre-Hispanic aquatic deity - was transported to the center of the city. At the same time, the biggest lake of the valley was being drained.





Eco-Ground

에코그라운드

어린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This section introduces outstanding and entertaining films that can be enjoyed by children and the entire family.

앤츠 온 어 슈림프 *Ants on a Shrimp*

마우리스 데커스 Maurice DEKKERS | Netherlands | 2015 | 88' | Documentary

<앤츠 온 어 슈림프>는 생애 단 한번뿐인 창의력과 영감에 대한 탐구이자,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음식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장소들, 풍경과 소리, 맛과 색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 음식으로 가득한 다큐멘터리는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선정한 인물(레드제피)과 그의 국제적 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수행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Ants on a Shrimp is an once-in-a-lifetime exploration of creativity and inspiration, and a journey of discovery into the people and places, sights and sounds, tastes and flavors, of one of the world's most amazing food cultures. For the first time ever, this food filled documentary will offer a glimpse into the mind of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people (*Time Magazine*) and his international team, as they undertake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their careers.



5/8 12:00 Cinecube
5/12 17:00 Cinecube

에이프릴과 조작된 세계 *April and the Extraordinary World*

크리스티앙 데마르, 프랑크 에킨시 Christian DESMARES, Franck EKINCI
France, Belgium, Canada | 2015 | 105' | Animation

1941년 프랑스, 나폴레옹 5세의 통치 시기에 과학자들의 의문스런 실종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 이곳은 현대의 기술 없이 석탄과 증기에 의해 돌아가는 세계이다. 에이프릴은 그녀의 실종된 과학자 부모를 찾아 나선다. 그녀는 말하는 고양이 다윈과 개구쟁이 줄리어스와 함께, 누가, 왜 과학자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위험과 대면한다.

1941, Napoleon V is the ruler of France and scholars keep mysteriously disappearing. Without modern technology, the world runs on coal and steam. A young girl named April goes off in search of her scientist parents who vanished. Accompanied by her talking cat Darwin and a young rogue named Julius, she will brave mysteries and danger in order to discover who is capturing the scholars and why.



5/8 10:00 Seoul Museum of History
5/10 12:30 Seoul Museum of History

랜드필 하모니 *Landfill Harmonic*

브래드 울굿, 그레이엄 타운슬리 Brad ALLGOOD, Graham TOWNSLEY
USA | 2015 | 84' | Documentary

<랜드필 하모니>는 쓰레기만으로 만들어진 악기를 연주하는 파라과이의 카테우라 재할용 오케스트라를 따라간다. 그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자,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이상적인 음악감독 파비오 차베스의 지도 아래 오케스트라는 연일 매진 기록을 세운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나라를 덮치면서, 파비오는 오케스트라를 지켜내고 마을에 희망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음악이 지닌 강력한 힘과 인간의 끈기에 대한 기록.

Landfill Harmonic follows the Recycled Orchestra of Cateura, a Paraguayan musical group that plays instruments made entirely out of garbage. When their story goes viral, the orchestra is catapulted into the global spotlight. Under the guidance of idealistic music director Favio CHAVEZ, the orchestra must navigate a strange new world of sold-out concerts. However, when a natural disaster strikes their country, Favio must find a way to keep the orchestra intact and provide a source of hope for their town. The film is a testament to the transformative power of music and the resilience of the human spirit.



5/7 14:30 Seoul Museum of History,
5/10 10:00 Seoul Museum of History

바다의 노래: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Song of the Sea*

톰 무어 Tomm MOORE | Ireland, Denmark, Belgium, Luxembourg, France | 2014 | 93' | Animation

등대 앞 바다에서 살고 있는 소년 벤에게 아름다운 자장가를 불러주던 엄마가 여동생 시얼사를 낳은 후 갑자기 사라진다. 몇 년이 지나도 말을 하지 못하는 시얼사는 엄마가 남긴 나팔고동을 우연히 볼게 되고, 무연가에 홀린 듯 바다 속으로 들어가 바다표범과 신비로운 모험을 한다. 딸까지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는 남매를 도시의 할머니에게 보내지만, 벤과 시얼사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선다.

A young boy, Ben lives near a seaside lighthouse. His mother who used to sing beautiful lullabies for him suddenly disappears after she gives birth to his sister, Saoirse. For years, Saoirse is unable to speak until one day, she blows on her mother's triton shell, and then drawn into the sea as if she's bewitched to experience a magical adventure with a seal. Fearful of losing his daughter as well, Ben's father sends his two children off to the city to be with their grandmother. But Ben and Saoirse set off on a journey to return to their home.



5/7 10:00 Seoul Museum of History,
5/11 10:00 Seoul Museum of History

13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제13회 서울환경영화제

5/10 15:00 Seoul Museum of History, 5/12 12:00 INDIESPACE

뜻밖의 손님 An Unusual Guest

니스벳 호루스틱 Nisvet HRUSTIĆ | Bosnia and Herzegovina | 2015 | 9' | Documentary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온 작은 곰이 우연히 관광마을에 나타난다. 그곳에서 곰은 마을의 관광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The lost small bear from untouched nature comes across a tourist village where he theatrically shows its program, after which he returns to Mother Nature.



살빼지 마요 Getting Fat in a Healthy Way

케보크 아슬라니안 Kevork ASLANYAN | Bulgaria, Germany | 2015 | 22' | Fiction
중력이 약해져 마른 사람들은 하늘로 날아가버리는 세계. 콘스탄틴은 아버지 아타나스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건물로 이사 온 아름다운 스튜어디스가 콘스탄틴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다.

In a world where gravity is weak and skinny people fly into the sky, Constantine has never left the apartment he shares with his father Atanas. But one day the beautiful stewardess who moves into the building will change Constantine's life forever.



나는 지구입니다 I Am Part of It

이브 구찰, 클라우디아 뢰틀린 Yves GUTJAHR, Claudia RÖTHLIN
Switzerland | 2015 | 18' | Documentary, Animation

Feeding the Planet - Energy for Life. 밀라노 엑스포 2015의 중심 주제는 지속가능성, 혁신, 전통 그리고 기술이다. 스위스 파빌리온 지역은 이 주제들을 반영하는 스위스 사람들에 관한 16편의 애니메이션 단편으로 채워진다.

Feeding the Planet - Energy for Life, the central theme of the World Expo Milano 2015 covers sustainability, innovation, tradition and technology. The Swiss Pavilion area is dotted with a total of 16 animated shorts presenting people from Switzerland who reflect these topics.



웰기사람들 Wellgyi

헛 앙 산, 캄 캄 싱, 투투 수위 쓰이 Htet Aung San, Kam Kham Sing, Thu Thu Swe Thein
Myanmar | 2015 | 27' | Documentary

미얀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다룬 이 영화는 미얀마의 다른 많은 마을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대표한다.

It's about one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 Myanmar. This film represents so many villages in Myanmar.



작품 색인 Index

A.D.A.M. 37	데어 투 비 와일드 24	소풍 22	카르텔 랜드 16
Sky Park View 37	돌고래와 나 21	스톱 21	카림 30
갈매기의 도시 29	동물도감 22	시화공존 23	킬링 타임 28
개미우듬 15	땅을 사라 24	아이 엠 하블리 28	팅 빈 하블리 27
겨울 갈나무 19	블라코칸, 물의 천국 37	앤츠 온 어 shrimp 38	트랜스휴먼스 17
고기라 불리는 동물들 29	뜻밖의 손님 40	언브랜디드 28	트리 인 더 씨 31
그녀의 전설 22	랜드필 하우니 39	얼룩진 하늘 - 보이지 않는 위협 26	팻볼루션 32
그들만의 만찬 30	레드엔드와 식물공장 18	에이프릴과 조적된 세계 38	피고인들 19
그래피티 32	레이싱 익스팅션 36	에스앤 프로젝트 2 36	하얀 이끼 31
그림에도 불구하고 20	루센스 18	와일드리스 29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16
깊은 곳에서 25	마지막 이누이트: 나누크의 후예 32	우리 집에 호랑이가 산다 30	해가 뜨는 날 18
깨어나는 도시 15	매춘의 그림자 34	움켜쥔 땅 17	해파리의 노래 21
깨어난 침묵 20	매신자 17	유티스틀리아에 37	해마피아 21
나는 지구입니다 40	목화의 꿈 19	웰기사람들 40	해의 봉인 24
나미브 사막의 사자들 31	바다의 노래벤과 셀기요정의 비밀 39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26	해일 17
나의 연막이 푸르러질 때 26	뱅킹 네이저 35	인사이드 피 29	호수의 말 25
내사랑 한옥마을 20	베헤모스 16	자개단추 33	환상의 섬 25
노동자의 죽음 34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33	적막의 경관 23	홀리건 스페로우 27
다음 침공은 어디? 14	산불과 사람들 18	점보 와일드 25	휴먼 35
달콤한 미스터리 30	살레로 26	주석소년 18	
대도시 34	살빼지 마요 40	지나간 미래 19	
더 필드 32	소년, 달리다 16	철장을 열고 28	

A.D.A.M. 37	Dolphin and Me 21	Last Kings of the Arctic, The 32	Sweet Mysterious 30
After Breaking the Silence 20	Emptying the Skies 27	Lasting Persimmon, The 19	Tiger in My Backyard, A 30
Animal Book, The 22	Fatvolution 32	Lucens 18	Tin Boy, The 18
Animals Labelled as Meat 29	Field, The 32	Megacities 34	This Changes Everything 26
Anthill 15	From the Depths 25	Messenger, The 17	Tlalocan, Water Paradise 37
Ants On a Shrimp 38	Getting Fat in a Healthy Way 40	Mountain Fire Personnel 18	Transhumance 17
April and the Extraordinary World 38	Graffiti 32	Nostalgia for the Light 33	Tree in the Sea, A 31
Awakening City 15	Hail 17	Nuclear Mafia, The 21	Unbranded 28, A
Banking Nature 35	Hooligan Sparrow 27	OVERCAST - An Investigation into Climate Engineering 26	Unlocking the Cage 28
Behemoth 16	How to Change the World 16	Pearl Button, The 33	Unusual Guest, An 40
Boys Run 16	Human 35	Picnic 22	Vanishing Kings - Lions of the Namib 31
Capital 37	I Am Dublin 28	Racing Extinction 36	Wellgyi 40
Cartel Land 16	I Am Part of It 40	Red-end and the Factory Plant 18	Where Mermaids Go 22
Change of Hands 24	Inside Fur 29	Salero 26	Where the Hills Are Greener 26
Coexistence with Shihwa Lake 23	Insolation 18	Seagull City 29	Where to Invade Next 14
Containment 24	Isla Bonita 25	Song of a Jellyfish 21	White Moss 31
CottonDreams 19	Jumbo Wild 25	Song of the Sea 39	Whores' Glory 34
Dare To Be Wild 24	KATIK 30	Still and All 20	Wildless 29
Daughter of the Lake 25	Killing Time 28	STOP 21	Workingman's Death 34
Dearest, Hanok Village 20	Land Grabbing 17	Swayer Corporations 19	Yes Men Are Revolving, The 36
Defendant 5 19	Landfill Harmonic 39		
Dinner for Few 30	Landscape Between Past and Future, A 23		

13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제13회 서울환경영화제

상영관 안내 Venue Map and Information

생성한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Please use public transportation for our environment.

지하철 Sub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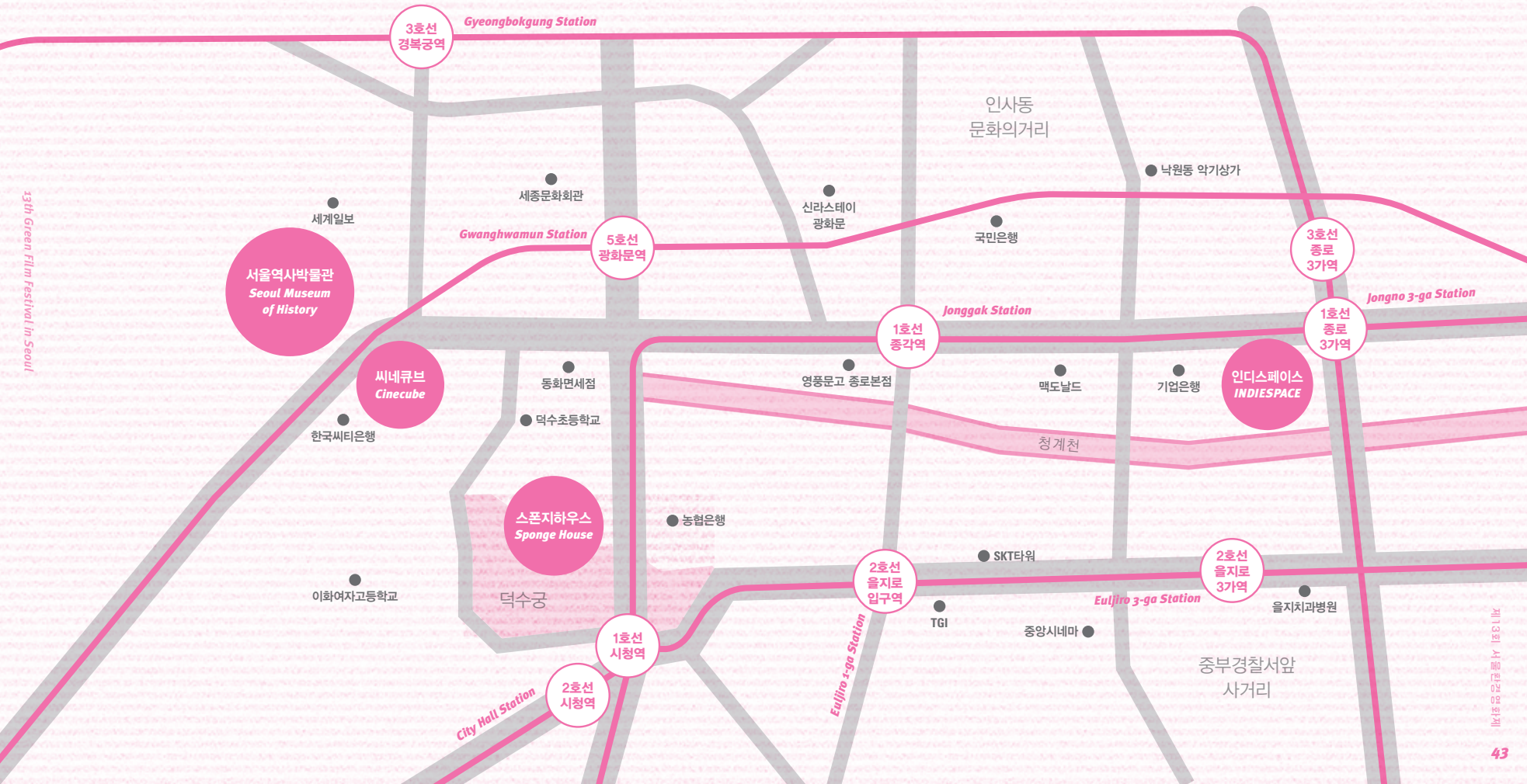
씨네큐브 Cinecube,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스폰지하우스 Sponge House

- 5호선 광화문역 (6, 7번 출구) Line 5 Gwanghwamun Station Exit 6, 7
- 5호선 서대문역 (4, 5번 출구) Line 5 Seodaemun Station Exit 4, 5
- 1, 2호선 시청역 (3번 출구) Line 1, 2 City Hall Station Exit 3

인디스페이스 INDIESPACE

- 1호선 종로3가역 (14, 15번 출구) Line 1 Jongno 3-ga Station Exit 14, 15

13th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제13회 서울환경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와 함께 하는 즐거운 발걸음!

서울환경영화제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에코스퀘어 스탬프 투어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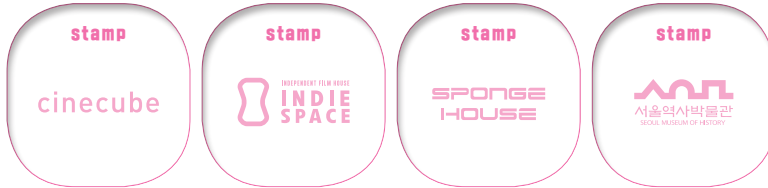
2016년 서울환경영화제 티켓카탈로그에 소개된 4곳의 상영관 스탬프를 모아오시면 티켓교환권 및 씨크릿 박스를 드립니다!

참 여 기 간 5월 7일(토) ~ 5월 12일(목) (6일간)

참 여 방 법 각 상영관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를 찾습니다. 이벤트 담당 그린티어와 반갑게 인사 후 스탬프를 날인할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스탬프를 날인 받은 후, 다음 장소의 위치를 파악한 뒤 힘차게 이동합니다.

선물교환방법 상영관 3곳 스탬프를 받은 경우 → 각 상영관 이벤트 부스에서 인증 후 티켓교환권 증정!
상영관 4곳 스탬프를 받은 경우 → 씨네큐브 이벤트 부스에서 인증 후 씨크릿 박스 증정!

주 의 사 항 선착순 증정 및 1일 수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영화제를 격하게 아껴주시는 GFFIS 매니아를 위한 티켓인증 이벤트

2016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마련된 다양한 환경영화를 관람하시고 GFFIS 매니아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받아주세요.

참 여 기 간 5월 7일(토) ~ 5월 12일(목) (6일간)

참 여 방 법 영화제 기간 동안, 5편 이상 영화 관람 후 모든 티켓만 소지하고 있으면 완료!

선물교환방법 소지하신 5개의 티켓을 씨네큐브 이벤트 부스에서 인증 (해당 티켓에 스탬프 날인 진행 / 중복교환방지)

주 의 사 항 일자별 준비된 선물이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GFFIS 매니아 박스) 관객심사단 및 ID발권 티켓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답하라 2030 기후변화시대 新 삼국지
아시아의 내일을 찾다

제9회 피스&그린보트



일정 | 부산-상하이-오키나와-나가사키-후쿠오카-부산

참가인원 | 총 1100명 (한국인 550명 일본인 550명)

선내 프로그램 | 2030 기후변화 포럼, 한일 참가자 교류 프로그램 등

주최 | 환경재단, 피스보트

참가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 www.greenboat.org

문의 | 02-2011-4369/4391

이메일 | greenboat@greenfund.org